

유대교는 어떻게 중심을 잃고도 하나의 전통으로 남았는가

성전 · 토라 · 해석 · 가정 · 시간 · 디아스포라를 통한 장기 종교체계의 재구성

유아독존 · ChatGPT

Working Paper · 본문 중심 공개판

본문 1-13장 + 참고문헌

이 공개판은 내부 검증표 · 편집 메모 · 출간 설계 부록을 덜어내고, 독자가 읽을 본문과 참고문헌을 중심으로 다시 편집했습니다.

서울드림의원 · 원장의 머릿속 / 개인 연구 프로젝트

1 서론

1.1 중심이 사라진 뒤 남은 것

고대 종교에서 성전과 국가는 신앙의 주변 장치가 아니었다. 제사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조정했고, 왕 과 제사장은 토지 · 달력 · 조세 · 순례를 한 질서로 엮었으며, 수도의 성소는 공동체의 우주적 중심을 가시화했다. 그런데 유대교는 바로 그 중심을 두 차례 잃고도 사라지지 않았다.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과 제1성전을 파괴했고, 서기 70년 로마가 제2성전을 파괴했다. 무엇이 살아남았던 것인가. 익숙한 답은 ‘책’이다. 성전의 종교가 토라의 종교로, 희생의 종교가 기도와 학습의 종교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중요한 사실을 붙잡는다. 그러나 그 답은 너무 빨리 성공한다. 토라는 성전 파괴 이전에도 존재했고, 회당과 디아스포라 공동체도 70년 이전에 있었다. 반대로 70년 뒤에도 성전은 기도 방향, 축제, 애도, 메시아 희망 속에서 결코 단순히 사라지지 않았다. 희생제회는 책이 대신 수행할 수 없는 물질적 · 장소적 행 위였고, 초기 랍비들이 모든 유대 공동체를 지휘했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질문은 ‘무엇이 무엇을 대체했는가’보다 ‘어떤 기능이 사라지고, 어떤 기능이 어느 매체로 옮겨졌으며, 누가 그것에 실제로 접근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본 연구의 중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유대교는 왕국 · 성전 · 영토 · 제사라는 강력한 중앙체계를 잃고도 어떻게 장기간 하나의 전통으로 재생산될 수 있었는가. 그 연속성은 불변의 보존이었는데, 아니면 핵심 기능을 다른 매체와 제도로 이전하면서 무엇이 같은 전통인지 반복적으로 재판정한 결과였는가.

1.2 가설과 검증범위

출발가설은 유대교의 핵심 기능이 성전 · 텍스트 · 해석자 · 회당 · 가정 · 몸 · 의례 · 시간 · 교육 · 장거리 네트워크 사이에서 이동했고, 공통 기억 · 참조텍스트 · 해석규칙 · 구성원 경계가 상호인식 가능성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산이 생존을 만들었다’, ‘박해가 공동체를 강하게 했다’, ‘성전이 텍스트로 대체되었다’, ‘랍비가 유대교를 설계했다’는 명제는 전제하지 않는다. 각각은 반례에 노출된다. 연구범위는 초기 이스라엘 종교부터 현대 유대교까지지만, 백과사전식 통사가 아니다. 각 시대는 중심 질문을 푸는 데 필요한 만큼만 다룬다. 시오니즘과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도 유대교와 국가주권의 재접합, 구성원 분류, 디아스포라의 지속이라는 문제에 한정한다. 사후세계는 초기 스승에서 부활 · 다가올 세계 · 카탈라적 영혼론으로 이어지는 교리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압축 사례로 사용한다.

방법은 네 질문의 반복이다. 상태는 무엇이 존재했는지, 전승은 어떤 사람 · 기관 · 매체가 그것을 전달했는지, 유효한 실천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접근하고 실행했는지, 결과는 무엇이 지속 · 변형 · 소멸했는지를 묻는다. 토라의 존재에서 생활규범으로 곧장 건너뛰지 않고 필사 · 번역 · 낭독 · 회당 · 교육 · 가정이라는 인 터페이스를 넣는다. 규범문헌은 지향과 분류를 보여주지만, 실제 행동은 고고학 · 비문 · 파피루스 · 동물뼈 · 건 축과 교차검증한다.

1.3 논문의 담

검증 뒤 남은 답은 조건부다. 유대교의 장기 연속성은 하나의 중심이 보존된 결과가 아니라, 여러 기능이 불완전하게 분해되어 다중 매체에 재배치되고, 다섯 장치가 그 분산을 계속 조정한 결과다. 그 장치는 기능의 다중매체 재배치, 공통 참조체계와 해석 절차, 가정 · 교육 · 몸을 통한 다중채널 세대전승, 달력 · 통신 망을 통한 재동기화, 구성원 경계의 반복적 재판정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생존을 진리나 정의로 바꾸지 않는다. 살아남지 못한 공동체와 회복되지 않은 손실, 설명할 수 없어야 하는 파국도 그 안에 남는다.

2 선행연구와 분석틀

2.1 네 개의 강한 설명과 그 설명잔차

첫 번째 설명군은 문화기억이다. 아스만은 의례, 축제, 정전과 반복되는 형식이 집단의 과거를 현재의 지평에서 재구성한다고 보았다. 예루살미는 유대 전통의 자카르, 곧 ‘기억하라’는 명령과 근대 역사학의 거리를 추적했다 (Assmann 2006; Yerushalmi 1982). 이 관점은 출애굽이 박물관 속 과거가 아니라 안식 일 · 유월절 · 윤리명령을 생산하는 현재적 기억임을 설명한다. 그러나 기억이 사람에게 도달하는 필사 · 낭독 · 식탁 · 학교 · 달력 · 언어의 조건을 따로 분석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기억했다’는 문장이 행위자를 지운다. 두 번째는 텍스트화와 정전화다. 스톡의 ‘텍스트 공동체’는 문헌 자체보다 그것을 해석해 생활을 조직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든다는 통찰을

제공한다. 할베르탈은 정전의 규범적 권위와 형성적 권위를 구분 했고, 슈니데윈드는 고대 이스라엘의 국가·서기관 문화와 문자화를 연결했다 (Stock 1983; Halbertal 1997; Schniedewind 2004). 보아린은 바빌로니아 탈무드를 이동 가능한 고향으로 읽었다 (Boyarin 2015). 그러나 ‘책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문해력 격차, 값비싼 필사본, 구술 낭독, 번역, 해석자, 가정의 반 복 노동을 생략할 수 있다. 텍스트가 공동체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과 대중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세 번째는 70년 이후의 랍비화다. 오래된 도식은 야브네에서 바리새·랍비가 신속히 권위를 장악하고 성전 유대교를 재설계했다고 보았다. 코언은 정전과 예전을 일시에 확정한 ‘야브네 공의회’ 상을 해체했고, 헤저는 초기 랍비 운동의 제한된 규모와 후원망을 분석했다. 슈위츠와 라핀은 랍비 권위가 로마·비잔틴 사회 속에서 장기간 확대되었다고 본다 (Cohen 1984; Hezser 1997; Schwartz 2001; Lapin 2012). 이 연구들은 단절과 점진성을 잘 설명하지만, 기도·자선·가정의례·회당·달력이 어떤 성전 기능을 어느 정도 떠 맡았는지를 한 비교표에서 다루지는 않는다. 네 번째는 디아스포라와 사회재생산이다. 게오넵과 응답문학, 카이로 게니자, 상인서신, 혼인·교육 연구는 분산된 공동체가 네트워크와 가정을 통해 결속한 방식을 보여준다 (Brody 1998; Goitein 1967 - 1993; Fishman 2004). 그러나 분산 자체는 원인이 아니다. 길과 항구가 끊기고 우편이 불안하며 전문 학자가 재생산되지 않으면 분산은 중복성이 아니라 고립이 된다. ‘휴대 가능한 종교’라는 표현은 무엇이 휴대 되고 누가 운반했으며 어느 제국의 인프라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밝힐 때만 설명력을 갖는다.

2.2 다섯 변수와 네 단계

본 연구는 기존 설명을 대체하지 않고 서로 접속한다. 첫째 변수는 기능의 다중매체 재배치다. 제사, 속죄, 권위, 집회, 교육, 기억, 달력 운영을 분리하고 각각의 이동과 소멸을 추적한다. 둘째는 공통 참조체계와 생성·판정 절차다. 토라와 후대 문헌을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새 사례를 어떤 범주에 넣고 어느 선례와 비교할지 배우는 과정이다. 셋째는 다중채널 세대전승이다. 전문교육과 공적 예배뿐 아니라 가정, 몸, 음식, 애도, 언어, 반복 습관을 포함한다. 넷째는 재동기화다. 달력, 서신, 순례, 상업망, 인쇄와 회합이 지역적 차이를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서 행동의 시점과 참조점을 맞춘다. 다섯째는 구성원 경계다. 누가 전통을 물려받고 개종으로 들어오며 혼인·출생·공동체 승인·국가 분류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다룬다. 모든 변수는 네 단계로 검증한다. 규범이나 시설의 존재,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접근가능성, 실제 행위의 준수 또는 변용, 그로부터 나온 사회적 결과는 등치되지 않는다. 또한 규범이 문헌에 형성된 시점과 대중이 그것을 널리 알게 된 시점도 같지 않다. 이 구분은 랍비 문헌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문헌이 무엇을 문제로 만들고 어떤 차이를 중요하다고 분류했는지 정확히 읽게 한다.

2.3 연속성의 측정

‘같은 전통’은 완전한 교리 일치로 정의할 수 없다. 제2성전기의 부활 논쟁, 중세 합리주의와 카발라, 근대 종파 분화는 그러한 정의를 무너뜨린다. 그렇다고 아무 변화나 연속성이라고 부르면 개념이 공허해진다. 본 연구는 최소한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확인될 때 상호인식 가능성이 유지되었다고 본다. 행위자들이 이스라엘·출애굽·시나이·예루살렘 같은 기억과 토라를 공통 참조점으로 삼는가, 서로의 관행을 승인·비판·논쟁할 수 있는 번역 가능한 언어가 있는가, 혼인·개종·교육·달력·공동체 제도를 통해 다음 세대를 자신과 관련된 유대인으로 분류하는가. 이 지표는 ‘진정한 유대교’를 판정하는 신학 기준이 아니라 역사적 연결성을 기술하는 분석 도구다.

3 중앙화 이전과 중앙화

3.1 구원이 규범보다 먼저 온다는 서사

유대교를 단지 ‘최초의 유일신교’라고 소개하면 이 논문의 질문은 시작되기도 전에 잘못 설정된다. 성서의 최종 형태는 야훼만이 신이라는 강한 주장을 담지만, 철기시대 이스라엘 종교의 비문·이름·제의 흔적과 성서 내부의 논쟁은 야훼 숭배가 가난한 및 고대 근동의 다신적 환경 속에서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특정 집단이 야훼에게 배타적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요구와 다른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존재론적 유일신론은 같은 명제가 아니다. 학계는 그 발전의 시기와 경로를 논쟁하지만, 포로기 전후의 장기간 재구성을 한 순간의 계시된 완성으로 치환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넓은 합의가 있다 (Smith 2001; Day 2002; Albertz 1994). 1 더 중요한 출발점은 유일신론의 정의보다 출애굽 서사의 순서다. 이야기의 논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억압에서 구원된 집단이 언약을 맺고 그 결과로 삶의 규범을 받는 순서다. 구원 → 언약 → 율법이라는 배열은 규범을 관계의 조건이자 응답으로 만

든다. 물론 출애굽 사건의 역사적 규모와 세부 는 논쟁적이다. 본 연구가 사용하는 것은 사건을 그대로 복원한 연대기가 아니라, 후대 유대 공동체가 자신 을 ‘ 노예였고 구출된 자들의 후손 ’ 으로 기억하는 서사구조다.

1 ‘ 배타적 야훼 숭배 ’ 와 강한 유일신론의 구분 및 연대는 논쟁적이다. 본문은 하나의 선형단계를 전제하지 않는다. Mark S.

Smith, The Origins of Biblical Monothe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서지정보; John Day, Yahweh and the Gods and Goddesses of Canaan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서지정보.

신명기와 유월절 전승은 과거형을 현재의 행위로 바꾼다.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기억은 이방인, 종, 가 난한 자를 대하는 규범의 이유가 되고, 유월절 식탁에서 각 세대는 해방을 자신의 사건처럼 재서술한다. 기억은 저장고가 아니라 명령 생성 장치다. 안식일도 창조와 출애굽의 기억을 일주일마다 몸의 중단과 타인의 휴식으로 번역한다. 음식규정, 할례, 축복, 가족교육은 추상적 소속을 시간표와 신체 습관으로 바꾼다. 이 메커니즘 덕분에 정치적 주권이 없는 환경에서도 일부 규범은 집 · 식탁 · 몸이라는 작은 단위에서 반복될 수 있었다. 다만 성서가 그렇게 명령한다는 사실은 실제 이스라엘인이 모두 그렇게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다.

3.2 왕과 땅과 예루살렘

유대교를 본질적으로 분산된 종교로 묘사하는 것도 역사적 오류다. 군주국 시대와 제2성전기의 예루 살렘은 제사, 순례, 재정, 제사장 계보, 정치 권위를 한 장소에 집중했다. 신명기적 중앙화 이념은 ‘ 야훼가 택한 곳 ’ 에 희생을 모으려 했고, 열왕기 전승은 요시야의 개혁을 그 프로그램의 절정으로 제시한다. 실제 시행 범위와 연대는 논쟁적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후대 유대인의 정체성과 제의경제에서 압도적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공간적 집중은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냈다. 한편으로는 여러 지역과 계층을 순례와 달력, 제사장제, 왕조기억으로 통합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파괴가 제의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단일 실패지점을 만들 었다. 이 말은 중앙화가 ‘ 나쁘고 ’ 분산이 ‘ 좋다 ’ 는 가치판단이 아니다. 중앙화는 대규모 자원동원, 표준화, 가 시적 공동체를 가능하게 했고, 분산은 지역적 생존 가능성과 함께 분열 · 고립 · 권위경쟁을 늘렸다. 두 조직형 태는 서로 다른 역량과 취약성을 가진다. 이스라엘의 권위도 왕과 성전만으로 환원되지 않았다. 왕은 전쟁 · 재정 · 사법의 권력을 가졌고, 제사장은 제의와 정결, 토라의 일부 전승을 담당했으며, 예언자는 왕과 제사장, 부유층을 야훼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비판했다. 서기관과 지혜교사는 다른 지식형식을 축적했고, 토라는 현직 권력을 평가하는 상위 참조점으로 편집되었다. 예언자 전통의 중요한 기능은 중앙권력을 무조건 성화하지 않고, 제의가 정의를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있다. 이 내부 비판의 기억은 중심이 무너진 뒤에도 실패를 해석하고 권위를 재배치할 언어를 제공했다.

3.3 고대 근동의 하늘과 성서의 언어

창세기 1장은 해와 달을 통상적 명칭 대신 ‘ 큰 광명체 ’ 와 ‘ 작은 광명체 ’ 로 부른다. 고대 근동에서 태양과 달과 별이 신격 · 왕권 · 점복체계와 결합되었던 배경을 고려하면, 이 표현은 천체를 신적 경쟁자가 아니라 시간과 절기를 위해 배치된 피조물로 위치시키는 효과를 낸다. 이를 ‘ 탈신화화 ’ 라고 부르면 하나의 텍스트가 주변 문화의 모든 신화를 제거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더 제한적으로 천체의 탈신격화 또는 피조물화라고 부르는 편이 안전하다. 영향관계가 단순 복사로 증명된 것은 아니며, 유사한 우주 소재가 공유된 문화환경에서 다르게 배열되었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Smith 2001; Walton 2009). 2 성서에 반복되는 천체숭배와 우상숭배 금지도 곧바로 규범 준수의 증거가 아니다. 금지는 저자와 편집 자가 어떤 행위를 문제로 보았다는 직접증거이지만, 그 행위가 얼마나 흔했고 누가 수행했는지는 따로 입 증해야 한다. 다만 금지의 반복은 규범과 실제생활 사이에 지속적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제한 적 간접자료다. 쿤틸렛 아즈루드의 ‘ 야훼와 그의 아세라 ’ 비문, 가정 제의용으로 해석되는 소형상, 지방 성소 흔적은 공식적 배타주의와 생활 종교의 다양성을 함께 보게 한다. 개별 유물을 한 교리의 증명으로 쓰지 않되, 성서 규범이 곧 평균적 실천이었다는 가정을 흔들기에는 충분하다. 바알이 포함된 인명과 ‘ 보세트 ’, 곧 수치가 포함된 이름의 대응도 편집과 기억정치의 사례다. 이스바알 과 이스보셋, 므립바알과 므비보셋 같은 쌍은 경쟁 신격의 이름을 후대 전승자가 모욕적 요소로 바꾸었다 는 설명을 낳았다. 그러나 모든 사례가 일관된 치환은 아니고, ‘ 보세트 ’ 요소가 실제 인명에 사용되었다는 경쟁 해석도 있다 (Hamilton 1998). 따라서 ‘ 성경이 이방신 이

름을 지었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안전한 결론은 일부 이름전승이 경쟁 신격을 언어적으로 재평가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명명과 편집도 종교경계를 구성하는 매체였다는 것이다.

2 ‘탈신격화’는 본 연구의 제한적 해석이다. 문학적 의도나 직접 차용관계를 확정하는 말이 아니다. 고대 근동 배경과 창세기

1장의 기능적 배열에 대해서는 Smith 2001 및 John H. Walton, *The Lost World of Genesis One* (IVP Academic, 2009)을 참조하라.

3.4 중앙화의 역설

이 장에서 확인한 초기 상태는 분산과 중앙화의 직선적 진화가 아니다. 가정과 지역 성소, 왕궁과 중앙 성전, 예언과 토라가 겹쳤다. 전승은 구술, 제의, 가족서사, 왕실·제사장·서기관 네트워크를 통과했다. 유효한 실천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달랐고, 성서의 중앙화 프로그램 자체가 그 차이를 통제하려 한 증거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은 강한 통합 중심이 되었지만, 출애굽 기억·언약·비판적 예언·가정 반복이라는 비 중앙적 자원도 함께 축적되었다. 파국 뒤 작동한 것은 ‘원래부터 휴대 가능한 종교’가 아니라 중앙과 주변에서 이미 서로 다른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자원들의 재조합이었다.

4 파국과 기능이전

4.1 기원전 586년의 체계적 위기

바빌론의 정복은 건물 하나의 손실이 아니었다. 다윗 왕조, 유다의 영토주권, 예루살렘 성전, 희생제 의, 제사장 경제, 왕조의 신학적 약속이 동시에 흔들렸다. 고대 근동의 통상적 정치신학 안에서 패전은 보호신의 열세로 읽힐 수 있었다. 유다 전승의 중요한 재구성은 야훼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심판했다는 주장이다. 패배의 원인을 야훼의 무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언약 위반으로 옮기면서, 야훼는 한 왕국을 지키는 지역 신보다 제국을 심판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보편 주권자로 서술되었다. 정치적 영토는 축소되었지만 신학적 관할권은 확대되었다. 이 재구성은 언약 위반 → 심판 → 회개 → 회복이라는 강한 인과모형을 만들었다. 그것은 패전을 의미 없는 혼돈으로 두지 않고 윤리적·신학적 역사로 통합했다. 예언서, 신명기계 역사, 애가와 포로기 문헌은 파괴를 기억 가능한 서사로 바꾸었다. 토라의 편집과 서기관 활동, 족보와 공동체 경계, 안식일과 할례 같은 반복 규범, 가정의 이야기 전승은 성전 밖 저장매체의 비중을 높였다 (Albertz 2003). 그러나 포로기가 모든 문헌을 처음 만든 시기라고 할 수 없고, 유다 땅이 비어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잔류민, 바빌로니아 이주민, 이집트 등 다른 지역 공동체의 경험이 달랐으며, 귀환 뒤에도 단일 공동체가 즉시 복원되지 않았다 (Barstad 1996; Lipschits 2005). 욥기는 이 인과모형 안에서 중요한 내부 반례다. 의인의 고난을 개인의 죄로 환원하는 친구들의 설명은 거부되며, 고난의 원인은 인간에게 투명한 도덕회계로 제시되지 않는다. 욥기는 언약적 역사해석 전체를 폐기하지 않지만 ‘고난은 곧 죄의 결과’라는 자동 추론을 금지한다. 이 반례는 훗날 홀로코스트를 다룰 때 결정적이다. 전통 내부에는 파국을 설명하는 공식뿐 아니라 설명의 오만을 제한하는 텍스트도 있었다.

4.2 영토와 디아스포라의 부분적 분리

유수와 귀환은 ‘땅을 잃은 뒤 디아스포라가 시작되고, 모두가 돌아와 끝났다’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다. 바빌로니아 공동체는 장기간 존속했고, 이집트 엘레판티네의 야훼 공동체는 예루살렘의 규범과 다소 다른 성전·혼인·제의 관행을 남겼다. 디아스포라는 강제추방뿐 아니라 군사복무, 상업, 이주와 가족 네트워크를 통해 제2성전이 이전부터 형성되었다. 땅과 정체성은 분리되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 예루살렘은 순례·헌금·기도 방향·달력과 기억의 중심으로 계속 작동했고, 해외 공동체는 현지 언어와 제도에 적응했다. 이 단계의 기능이전은 완성품이 아니라 중층화다. 희생은 재건된 성전으로 돌아갔고, 왕조주권은 복원되지 않았으며, 토라·서기관·공동체 회합과 가정규범은 더 큰 비중을 얻었다. 제2성전기는 ‘성전에서 텍스트로’ 넘어가는 중간역이 아니라 성전과 텍스트, 제사장과 해석자, 유다와 디아스포라가 함께 작동한 독자적 체제였다.

4.3 하나의 성전과 복수의 유대교들

제2성전기의 공통요소는 분명했다.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의 조상과 출애굽 기억, 토라, 할례 · 안식 일 · 축제와 일부 음식규범은 여러 집단이 자신을 유대인으로 인식하는 자원을 제공했다. 샌더스가 ‘공통 유대교’라고 부른 층위가 있었지만, 그것은 단일 종파나 완전히 통일된 할라카가 아니었다 (Sanders 1992). 바리새파는 조상 전승과 생활 정결, 부활 신앙으로 알려졌으나 모든 민중을 지배했다는 옛 상은 수정되었다. 사두개파는 성전 귀족 · 제사장 집단과 연결되었고 부활 및 전승 권위를 다르게 보았다. 쿨란 문서가 보 여주는 운동은 예루살렘 제의와 달력의 타락을 비판하며 엄격한 공동체 규칙을 세웠다. ‘에세네’와 쿨란 거주집단의 정확한 관계는 논쟁적이므로 동일시를 전제해서는 안 된다 (Collins 2010). 지혜전통은 삶의 질서와 교육을 탐구했고, 묵시사상은 현 세계에서 실현되지 않은 정의를 천상 법정과 종말로 확장했다. 부활은 초기 스올 개념에서 자연스럽게 고정되어 있던 교리가 아니다. 초기 스올은 죽은 자의 어둡고 약한 존재상태를 주로 나타내며, 다니엘 12장과 마카베오기 같은 후기 자료에서 육체적 부활과 순교자의 회복이 선포해진다. 부활은 몸을 떠난 영혼의 본래적 불멸과 같지 않다. 제2성전기에는 부활, 영혼, 심판, 종말적 변형에 관한 여러 조합이 경쟁했다 (Nickelsburg 2006; Levenson 2006). 메시아도 다윗계 왕, 제사장적 인물, 천상적 구원자, 복수 메시아 또는 뚜렷한 메시아 없음까지 다양했다.

그리스어 번역은 또 다른 다원화였다. 칠십인역은 히브리어 원문의 단순한 열화본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와 지중해 유대인에게 경전 접근을 제공한 권위 매체였다. 번역은 현지언어로 토라를 확장했지만 어휘와 해석의 차이도 만들었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가 전하는 왕실 후원과 72인 번역자 이야기는 그대로 역사기록이라기보다 번역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현장 신화로 읽힌다 (Honigman 2003; Rajak 2009). 동일한 성전이 존재하던 때에도 문헌목록, 달력, 부활, 메시아, 정결을 둘러싼 다원성이 공존했다는 사실은 중앙성만으로 통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강한 반례다.

4.4 서기 70년은 전환점이지 완성일이 아니다

로마의 성전 파괴는 희생제도와 순례경제, 사두개적 제사장 권위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70년 → 야브네 회의 → 완성된 랍비 유대교’라는 서사는 사료보다 매끈하다. 야브네에서 현자들의 활동과 제도 조정이 있었지만, 성서 정전과 기도문, 유대교의 단일 지도부가 한 회의에서 확정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초기 랍비는 제사장을 그대로 대체한 성직자라기보다 토라의 분류 · 해석 · 판정과 교육을 전문화한 학자들이었다. 제사장 권위가 혈통과 성전 직무에 근거했다면, 랍비 권위는 스승과 제자, 학습 능력, 논쟁과 인정의 사슬에서 재생산되었다. 그 권위가 민중과 회당에 널리 침투한 시점도 후기 고대에 걸쳐 지역별로 달랐다 (Cohen 1984; Hezser 1997; Lapin 2012). 3 성전의 기능은 다음처럼 분해되었다. 제사는 중단되었고 미래 회복의 기억으로 남았다. 속죄는 회개, 기도, 금식, 자선, 이웃과의 화해, 속죄일 의례로 더 크게 표현되었다. 공동집회와 경전 낭독은 이미 존재하던 회당이 확대해 맡았고, 토라학습과 법적 판단은 학자 · 지역 법정 · 가정이 나누었다. 축제는 성전 제의가 사라진 채 가정과 회당, 달력 속에서 재연출되었다. 제사장 계보와 성전 기억은 기도와 혼인규정, 미래 희망 속에 남아 기능이 완전히 소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기도문이 희생 시간과 언어를 기억한 것은 대체의 성공이라기보다 부재의 지속적 표식이기도 했다 (Klawans 2006; Langer 2021).

3 야브네가 정전 · 기도 · 지도체제를 한 번에 확정했다는 옛 서사는 수정되었다. Shaye J. D. Cohen, “The Significance of

Yavneh,” HUCA 55 (1984): 27 – 53; Catherine Hezser, The Social Structure of the Rabbinic Movement (Mohr Siebeck, 1997), DOI.

그림 1 중앙파괴 이후 종교기능의 다중경로 이전도 기능 성전 중심 체제의 주요 매체 파괴 뒤 주요 매체와 행위자 완전대체 여부 희생 제단 · 제사장 · 동물 · 곡물 · 순례 기억, 기도 속 회복 청원, 관련 학습 아니요. 수행 자체는 중단 속죄 희생, 대제사장, 속죄일 성전의례 회개, 기도, 금식, 자선, 이웃과의 화해, 속죄일 일부 기능만 재구성 거룩한 집회 성전 뜰과 순례 회당, 학당, 가정 식탁, 지역 공동체 분산 확대, 장소 위계는 잔존 권위 왕 · 제사장 · 성전 관리 랍비 · 교사 · 법정 · 회당 지도자 · 가장 · 후원자 복수 권위로 재편 기억 제의 재연 · 성전 공간 경전 낭독, 기도, 유월절 서사, 애도, 교육 강하게 이전되나 의미 변화 시간 성전 달력 · 관측 · 중앙판정 지역 관측, 서신 · 사자, 계산규칙, 인쇄 달력 점진적 표준화 재분배 제물 · 십일조 · 성전 경제 자선기금, 공동체 세금, 구호조직 규모 · 수혜 · 권력구조 변화

4.5 기능이전의 세 가지 한계

첫째, 이동은 등가교환이 아니다. 기도는 동물희생의 물질성과 제사장 노동, 순례경제를 재현하지 못 한다. 가정의 유월절 세데르는 성전의 파스카 희생과 연결되지만 동일한 의례는 아니다. 둘째, 이동은 중앙 설계가 아니다. 서로 다른 지역과 집단이 이미 가진 회당, 기도, 금식, 성서해석, 자선 관행이 장기간 선택되고 연결되었다. 셋째, 이동은 권력의 소멸이 아니다. 제사장 중심성이 약해진 자리에 학습자·법학자·지역 엘리트·후원자의 새로운 위계가 생겼다. 따라서 기능이전은 ‘분산된 자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손실과 혁신, 새로운 전문화가 함께 일어난 조직양식의 전환이다. 표 1 유대교 장기변환의 상태와 결과 국면 상태 전승 경로 유효한 실천 결과 왕국·제1성전 왕·영토·성전·복수 지역 관행 제사장·왕실·예언자·가정·서기관 지역·계층별 불균등 예루살렘 중앙성 강화와 내부 비판 축적 바빌론 유수 왕조·성전 상실, 잔류민·이주민 분화 가정·예언·문헌 편집·족보·규범 디아스포라별 차이 패배의 신학적 재구성, 땅과 정체성의 부분 분리 제2성전 성전 재건, 제국지배, 복수 종파 성전·토라·번역·회당·학과 공통 관행과 경쟁 할라카 중앙성과 다원성의 동시 존재 70년 이후 희생 중단, 정치 재편 회당·학당·기도·가정·초기 랍비 랍비 권위의 느리고 불균 등한 확산 기능의 다중 재배치와 성전 기억의 지속 중세 디아스포라 다수 정치권·언어·지역 관습 게오님·응답·서신·상업·가족·책 지역 자율성과 장거리의 존 완전 동일성 없는 호환성 근대 시민권·개인화·공동체 강제력 약화 종파기관·학교·인쇄·가족·국가 선택적 소속과 다양한 준수 변화 메타규칙의 분화, 세속적 유대성 확대 국가주권 이후 이스라엘 국가와 지속하는 디아스포라 국가법·종교기관·정당·가정·세계 네트워크 종교·민족·행정법주의 충돌 재영토화와 비영토 전승의 병존

5 답을 저장하는 전통에서 답을 만드는 전통으로

5.1 미슈나가 만든 분류의 세계

서기 3세기 초 무렵 편집된 미슈나는 성전 없는 현실만을 다루지 않는다. 이미 중단된 희생과 성전 정결, 농경규정, 민사·형사·가족법, 안식일과 축제를 여섯 질서로 배열한다. 이것은 ‘실행 중인 법전’ 하나라기 보다 성전과 일상, 현실과 이상을 분류 가능한 토라 세계로 보존한 작업이다. 성전이 사라졌는데도 그 규정이 상세히 논의된다는 사실은 기능이전이 곧 망각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부재한 제도를 텍스트 안에 계속 사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기억의 한 형식이었다. 미슈나의 짧은 문장은 종종 익명 규칙과 이름 있는 상반 의견을 나란히 둔다. 『에두옷』 1장 5절은 다수 결 뒤 소수의견을 왜 기록하는지 묻는다. 후대 법정이 상황에 따라 그 견해에 의지할 가능성, 거부된 견해의 계보를 확인할 필요 등 여러 이유가 제시된다. 소수의견의 보존은 결론을 무력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느 선택지가 검토되었고 왜 배제되었는지 기억하게 한다. 전통은 단일 답을 가진다는 이미지보다, 판정과 미채택 가능성을 함께 기록하는 구조에 가깝다. 4 미슈나의 전승 역시 ‘책을 복사했다’는 말로 충분하지 않다. 엘리자베스 알렉산더가 강조하듯 기술적 수행과 반복은 단어의 재현만이 아니라 단위를 나누고 비교하며 관계를 재구성하는 학습이었다 (Alexander 2006). 암송자는 고정문장을 보존하는 동시에 문장의 배열과 차이를 분석했다. 필사본이 널리 보급되기 전에는 교사와 동료 학습자, 소리 내어 반복하는 몸이 저장매체였다. 이 점은 텍스트와 구술을 대립항으로 두기보다 서로 보강하는 기술로 보게 한다.

5.2 탈무드의 논증경로

팔레스타인 탈무드와 바빌로니아 탈무드는 미슈나를 중심에 놓고 다른 전승, 성서 구절, 사례와 논변을 연결했다. 전형적 경로는 다음과 같다. 질문 → 분류 → 선례와 성서근거 → 반례 → 구별 → 논쟁 → 잠정 판정 또는 미결

4 『미슈나 에두옷』 1:5는 소수의견 보존의 이유를 한 가지로 환원하지 않는다.Sefaria

원문과 번역

.

이 형식의 장기적 중요성은 과거의 답을 저장했다는 데만 있지 않다. 새로운 사실을 어느 법적·서사적 범주에 넣을지, 유사 사례와 다른 점을 어떻게 만들지, 상충하는 출처의 권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관한 추론 경로를 함께 보존

했다. 후대 학습자는 같은 결론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질문이 유효하고 어떤 반례가 결론을 흔들 수 있는지 배웠다. 장기 전통은 과거의 답뿐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무엇을 유효한 답으로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생성 절차를 재생산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명제는 여기서 가장 강한 지지를 얻는다. 그러나 ‘생성규칙’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제한이 필요하다. 첫째, 탈무드는 현대 알고리즘처럼 명시적이고 일관된 규칙집이 아니다. 이야기, 법, 수사, 기억술과 편집층이 중첩된 문헌이다. 둘째, 현존 대화는 실제 학당에서 벌어진 토론의 녹취록이 아니다. 익명 편집층이 이전 전승을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재구성한 흔적이 크다 (Rubenstein 2003). 셋째, 논쟁의 다원성은 모든 목소리의 평등을 뜻하지 않는다. 여성, 농민, 비랍비 유대인, 패배한 집단의 목소리는 대개 랍비 엘리트의 언어를 통해서만 들린다. 따라서 탈무드를 현대 민주적 토론문화의 원형으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

5.3 판정과 미결의 동시 보존

전통은 끝없이 토론만 해서는 공동행동을 만들기 어렵고, 결론만 남기면 새 문제에 적응하기 어렵다. 랍비 문헌과 후대 할라카는 두 층을 분리해 결합했다. 탈무드는 다수의 논변과 미결을 보존했고, 게오님·주석가·법전 편찬자는 실제 행위를 위해 판정을 추출했다. 지역 공동체는 그 판정을 관습, 경제조건, 국가법과 조정했다. 심층 논쟁 아카이브와 실행 규칙은 경쟁재가 아니라 다른 시간축도에 필요한 두 인터페이스였다. 마이모니데스의 『미슈네 토라』는 이 긴장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탈무드 전체를 다시 탐색하지 않아도 실천할 수 있도록 판결을 주제별로 체계화했고, 철학 저술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전통과 성서 언어를 결합해 신에게 긍정적 속성을 부여하는 일을 경계하는 부정신학을 전개했다 (Twersky 1980; Halbertal 2013). 법전은 출처와 논쟁을 생략했기 때문에 거센 비판도 받았고, 후대 주석은 판결의 근거를 다시 탈무드 전승에 연결했다. 이는 법전화가 논쟁 아카이브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실행 속도와 근거 추적이라는 서로 다른 요구 사이에 층을 만든 사례다.

5.4 철학과 카발라가 공존한 조건

중세 유대교는 하나의 신론으로 통일되지 않았다. 마이모니데스의 철학적 신론과 부정신학은 신을 물 질적 형상이나 인간 속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했지만, 카발라는 세피로트라는 상징적 구조로 신적 생명과 세계, 인간의 계명 수행 사이 관계를 사유했다. 13세기 카스티야에서 출현한 『조하르』의 핵심층은 전통적으로 2세기 시몬 바 요하이에 게 귀속되지만, 역사학은 대체로 중세 저작으로 보며 모세 데 레온과 여러 층의 저자·편집 문제를 논쟁한다. 권위는 저술 순간에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쇄, 주석, 의례 채택과 학자 네트워크를 통해 확대되었다 (Green 2004; Huss 2016). 16세기 사페드의 루리아 계열 카발라는 신적 빛의 수축, 그릇의 파손, 불꽃의 회복이라는 우주론으로 인간 행위의 의미를 다시 배열했다. 그러나 ‘카발라가 유대교를 대체했다’거나 모든 유대인이 같은 신비체계를 믿었다고 할 수 없다. 철학·법·신비주의는 서로 비판하고 차용하며 다른 지역과 계층에서 상이한 비중을 가졌다. 그럼에도 안식일, 기도, 계명, 토라와 히브리어·아람어 전승을 공유했기 때문에 교리적 합의가 부족해도 실천과 참조체계의 부분적 호환성이 가능했다. 이 사례는 연속성을 신조 일치로만 측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표 2 답의 저장과 생성과 실행 층위 주된 형식 보존하는 것 장점 위험 정전·미슈나 권위문헌과 분류 기본 참조점, 용어, 사례 세대 간 공통 언어 접근성 격차, 맥락의 고정 탈무드·주석 질문·반례·논쟁 추론 경로와 대안 새 상황을 다룰 여지 편집된 엘리트 담론을 실제 토론으로 오인 법전·응답 판결과 적용 실행 가능한 규칙 결정비용 절감 지역차이와 소수견해 압축 관습·가정실천 반복 행동 몸의 지식과 소속 낮은 문해력에서도 전승 성별·세대 권력, 근거의 비가시성

5 『조하르』의 전통적 고대 귀속과 역사학적 중세 연대, 복합 저술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 Arthur Green, A Guide to the

Zohar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서지정보; Boaz Huss, The Zohar: Reception and Impact (Littman, 2016), 서지정보.

6 디아스포라의 분산재생산

6.1 분산은 상태이고 생존은 결과다

디아스포라는 곧 회복탄력성이라는 등식이 가장 먼저 깨져야 한다. 지리적 분산은 한 지역의 파국이 전체 인구를 한번에 파괴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단절된 소집단이 공통 문헌, 전문가, 배우자, 경제기반과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분산은 중복성이 아니라 소멸의 지연이 된다. 디아스포라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려면 분산 + 공통규칙 + 재동기화 + 전문인력 재생산 + 가정전승 + 외부 인프라의 결합을 보여 주어야 한다. 고대 지중해의 유대 공동체는 70년의 난민만으로 생기지 않았다. 알렉산드리아, 소아시아, 로마와 바 빌로니아의 공동체에는 강제이주와 자발적 이동, 군사와 상업, 친족 네트워크가 겹쳤다. 그루엔은 고대 디아스포라를 영구적 비탄이나 동화의 실패로만 보지 않고 현지사회 속의 자신감 있는 적응을 강조했다 (Gruen 2002). 이 교정은 중요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폭력과 로마의 추방, 법적 차별 같은 취약성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 디아스포라의 경험은 성공적 통합과 폭력적 배제 사이 한 점이 아니라 시기마다 움직이는 범위였다.

6.2 계오님과 응답문학의 회로

대략 6세기 말부터 11세기까지 바빌로니아의 수라와 폼베디타 학원, 그 수장인 계오님은 광범한 지역에서 질문을 받았다. 지역 공동체는 예배, 혼인, 상업, 상속, 의례와 해석 문제를 편지로 보냈고, 답변은 탈 무드와 학원 전승을 근거로 돌아왔다. 회로는 지역 문제 → 장거리 질문 → 전문 해석 → 문서화된 답변 → 지역적 적용이었다. 이 방식은 중앙이 모든 사례를 직접 집행하지 않고도 공통 법언어를 넓힐 수 있게 했다 (Brody 1998). 그러나 응답문학은 중앙 명령의 원격복제가 아니었다. 어떤 질문을 보낼지 결정한 것은 지역 지도자였고, 답변은 현지 관습과 국가법, 이용 가능한 필사본과 집행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었다. 답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은 질문자가 그대로 따랐다는 증거가 아니다. 질문 자체도 지역 주민 전체의 관심을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 계오님 권위는 경쟁 없는 독점이 아니었다. 팔레스타인 학문 전통, 카라이트, 지역 관습과 후대 유럽 학파가 다른 해석경로를 유지했다.

6.3 종지와 배와 상인의 신학적 중요성

카이로 게니자의 편지와 계약서는 유대교 연속성의 비신학적 기반을 드러낸다. 상인은 상품뿐 아니라 편지, 혼인정보, 구호 요청, 판례와 책을 항구 사이로 옮겼다. 종지의 확산은 파피루스와 양피지보다 값싼 기록과 복제를 가능하게 했고, 이슬람권의 행정·우편·상업도시와 공용어 아랍어는 멀리 떨어진 공동체를 연결했다 (Goitein 1967–1993; Goldberg 2012; Bloom 2001). 히브리어로 쓴 유대아랍어는 현지 언어 적응과 집단적 문자 경계가 한 문서 안에서 공존한 사례다. 이 물질조건은 부차적 배경이 아니다. 응답을 쓸 학자, 사본을 만들 필경사, 비용을 지불할 공동체, 이 동이 가능한 길과 선박, 문서를 보호할 정치집단이 있어야 ‘해석공동체’가 실제로 작동한다. 제국의 붕괴나 전쟁, 향로 변화, 검열과 빈곤은 종교정보의 이동속도와 범위를 바꿨다. 그러므로 분산도 외부 인프라에 의존한다. 현대 가능한 성스러움은 가방 속 책의 성질이 아니라 책·사람·경로를 계속 연결하는 사회적 성취다.

6.4 하나가 아닌 지역 전통

아슈케나지, 세파르디, 미즈라히는 고정된 세 종족이라기보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광범한 계보와 의례·언어·법적 관습의 집합이다. 같은 범주 내부에도 지역차가 크고 이동·혼인·추방으로 경계가 변했다. 아슈케나지 공동체는 라인란트와 북유럽, 동유럽에서 다른 기독교 정치·경제조건을 경험했고, 세파르디 계보는 이베리아와 1492년 이후 오스만·북아프리카·서유럽 이동 속에서 재편되었다. 미즈라히라는 현대 범주는 이라크, 이란, 예멘 등 매우 다른 오래된 공동체를 한데 묶는 효과가 있다. 지역 전통은 기도문, 발음, 음식, 혼인, 법적 판정과 신비주의에서 달랐다. 그러나 토라와 탈무드, 히브리 달력, 예루살렘 기억, 친족과 자선의 일부 규범은 상호 번역 가능한 참조점을 제공했다. 완전한 동일성 대신 상호인식 가능한 호환성이 더 정확하다. 서로의 관행을 모두 승인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유대인의 다른 관습’ 혹은 논쟁 가능한 일탈로 분류할 공통 언어가 있었다. 카라이트와 라반파가 격렬히 논쟁하면서도 문서·시장·때로는 가족관계에서 접촉했다는 게니자 자료는 경계가 단절선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Rustow 2008).

6.5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을 비교하는 법

중세 유대 생활을 ‘이슬람의 황금시대’와 ‘기독교의 박해시대’로 나누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이슬람권의 담미 지위는 종교적 자율성과 경제활동 공간을 허용하는 동시에 법적 열등과 특별세를 부과했다. 기독교권에서도 도시·영주·교회와 왕권의 이해가 달랐고, 보호와 배제, 신용·상업의 기회와 폭력·추방이 교차했다. 마크 코언은

완전한 공존의 신화와 끊임없는 박해의 신화를 함께 비판했다 (Cohen 1994). 비교의 단위는 문명 전체가 아니라 특정 시기의 법적 지위, 직업기회, 강제력, 이동망, 공동체 자치와 폭력의 조합 이어야 한다. 공동체 자율성도 양면적이었다. 자체 법정, 자선, 교육, 세금과 종교제재는 국가 없는 규범질서를 가능 하게 했다. 동시에 가난한 자, 여성,이전 집단과 경계인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었다. 근대 해방은 이 강제력 을 약화시키면서 개인 자유를 넓혔지만, 그 때문에 세대전승은 더 이상 당연한 공동체 환경에 맡길 수 없게 되었다. 디아스포라의 성공은 자율성 자체가 아니라 자율성과 외부국가, 지역관습과 장거리 권위 사이의 계속된 협상에 있었다.

6.6 분산체계의 실패조건

장거리 네트워크는 공격과 단절에도 취약했다. 십자군기의 학살, 1290년 잉글랜드 추방, 1492년 스페인 추방, 동유럽의 포그롬, 중동·북아프리카 공동체의 20세기 급격한 이산은 사람과 장소, 언어와 의례의 손실을 낳았다. 어떤 공동체는 다른 지역에서 재조직되었지만, 그것은 원래 세계의 복구가 아니었다. 라 디노와 유대아랍어의 약화, 사라진 회당과 묘지, 끊어진 가족계보는 ‘ 전통 전체의 생존 ’ 이라는 거시문장이 가릴 수 있는 비용이다. 이 장의 결과는 분명하다. 분산은 충격을 분산시킬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공통 참조체계와 통신, 학자·교사·필경사의 재생산, 가정과 공동체의 일상 노동, 외부 정치·경제 인프라가 결합할 때만 장기 연속성으로 전환된다. 조건 가운데 일부가 사라지면 분산은 생존기제가 아니라 고립의 지도다.

7 가정과 몸과 식탁과 시간

7.1 문헌이 습관이 되는 장소

전문가가 해석한 규범이 세대전승이 되려면 반복 가능한 생활형식으로 내려와야 한다. 집은 성전이나 회당의 축소판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종교 인프라다. 식재료 구입, 조리도구의 구분, 축복, 촛불, 휴식, 혼인, 출산, 성관계와 정결, 병자 돌봄, 죽음과 애도는 거대한 교리를 작은 결정으로 번역한다. 몸은 규범을 읽는 대상인 동시에 기억을 저장하는 매체가 된다. 안식일은 이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일주일을 동일한 노동시간의 연속으로 두지 않고 일몰을 경계로 멈추며, 식사·기도·가족·회당의 리듬을 결합한다. 출애굽기의 창조 기억과 신명기의 노예해방 기억은 휴식이라는 같은 행위에 서로 다른 근거를 부여한다. 일하지 않는 행위는 신학, 사회윤리, 정체성과 시간감각을 한꺼번에 훈련한다. 그러나 지역·계층·직업과 국가법에 따라 실제 중단 가능성은 달랐다. 규범의 접근과 경제적 수행능력을 구별해야 한다. 유월절은 과거 사건을 현재형으로 만드는 가정 의례다. 성전 시대의 파스카 희생과 후대 세데르는 연속되지만 동일하지 않다. 마짜, 마로르, 네 질문, 하가다 낭독, 음식과 몸짓은 출애굽 서사를 어린이와 손님이 참여하는 기억 공연으로 바꾼다. 질문하는 아이의 배치는 교육을 설명에서 대화로 만든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데르 형식을 곧바로 성서시대 가정에 투사해서는 안 된다. 의례 순서와 문구는 후기 고대와 중세에 걸쳐 발달했다. 음식 규범은 경계를 매일 갱신한다. 금지 동물이나 피, 도축, 고기와 젖, 포도주와 식기 문제는 시장·이웃·가족과의 접촉을 조직한다. 준수는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다. 어떤 집단은 돼지고기를 피하면서 다른 세부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다르게 실행할 수 있다. 동물뼈는 소비의 흔적을 제공하지만, 한 유적의 돼지뼈 부족이 곧 전체 토라법 준수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생태, 가격, 민족구성, 군대 주둔과 폐기방식도 함께 보아야 한다.

7.2 여성과 실제 전승노동

랍비 문헌의 공적 저자와 공식 권위자는 거의 남성이었다. 그러나 문헌의 저자 분포를 종교재생산 노동의 분포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식사 준비, 안식일과 축제의 가정 운영, 출산과 돌봄, 어린이의 첫 언어와 축복, 애도 관습은 많은 시대에 여성의 노동에 크게 의존했다. 동시에 ‘ 여성은 집의 종교 전승자 ’ 라는 칭찬은 여성을 가정에 고정하고 남성의 공적 권위를 자연화할 수 있다. 실제 여성은 경제·재산·법률·회당·후원 활동에도 참여했다. 브루튼이 모은 로마·비잔틴기 그리스어와 라틴어 비문에는 ‘ 회당장 ’, ‘ 장로 ’, ‘ 회당의 어머니 ’, ‘ 여사제 ’ 등으로 번역되는 직함을 가진 여성이 나타난다 (Brootten 1982). 이 자료는 여성이 공적 회당 공간에서 전혀 권위를 가질 수 없었다는 보편명제를 반박한다. 그러나 19개 안팎의 희귀 비문이 모든 지역의 평균을 대표하지 않으며, 명예직인지 실제 행정·예전 권한인지 직함별 의미도 논쟁적이다. 안전한 결론은 가능성과 다양성의 범위가 랍비 규범만으로 예상한 것보다 넓었다는 것이다. 6 바바타와 살로메 코마이세 문서는 2세기 초 사해 남동부 여성과 가족의 재산, 혼인, 후견, 소송을 보여 준다. 그들은 로마 행정과 그리스어 문서, 나바테아·아랍어 관행, 유대적 관계규범이 중첩된 법 세계에서 행동했다 (Lewis 1989; Czajkowski 2017). 바바타가 재산을 소유하고 법정에서 다뤘다는 사실은 여성

전 체의 평등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제 행위가 한 권의 법전보다 여러 관할권, 문서기술, 가족협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출산과 가족정결도 같은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레위기의 규정, 미슈나 『니다』의 정교한 분류, 미크베 유적, 후대 여성의 관습은 서로 다른 시기의 증거다. 그들을 한 직선으로 연결하면 규범 형성과 대중 확산의 시간차를 지우게 된다. 신체 규범은 소속의 강한 표지가 될 수 있지만, 의료지식, 주거, 물 접근, 가족관계와 공동체 감시가 실제 실행을 결정했다.

7.3 교육과 반복의 누적효과

자녀교육은 경전의 내용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동시에 질문하는 법과 ‘우리’의 경계를 가르친다. 그러나 고대와 중세의 모든 유대 소년이 보편적 학교교육과 높은 문해력을 누렸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랍비 문헌의 교육 이상을 통계적 현실로 읽어, 교육이 곧 직업 전환과 경제적 성공을 낳았다고 설명하는 거시모델은 규범과 실재를 혼동할 위험이 있다. 보티치니와 엑스타인의 경제모델은 자극적이지만, 비판

6 브루튼의 자료는 여성 직함의 존재를 입증하지만 그 빈도와 실제 권한은 별도 문제다. Bernadette J. Brooten, Women

Leaders in the Ancient Synagogue (Scholars Press, 1982), 서지정보.

자들은 보편 학교망과 초기 랍비 권위, 인구변동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Botticini and Eckstein 2012; Ackerman - Lieberman 2013; Chazan 2014). 7 실제 학습은 학교, 회당 낭독, 가정의 축복과 노래, 장인의 도제, 축제 준비, 질문과 모방의 혼합이었다. 문자를 읽지 못해도 달력에 맞추어 쉬고, 특정 음식을 피하고, 장례에 참여하며,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전통에 접근할 수 있었다. 반대로 문자교육을 받았다고 모든 규범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교육은 준수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해석 가능성과 전문인력 재생산을 높이는 하나의 경로다. 반복 의례는 작은 비용을 장기간 누적한다. 안식일은 7일마다, 절기는 해마다, 기도와 음식 선택은 더 자주 정체성을 재확장한다. 이 반복은 관념을 습관으로 바꾸지만 자동기계가 아니다. 각 세대는 의미를 다시 설명하고, 생활 조건에 맞추어 시간을 확보하고,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을 다루어야 한다. 습관은 기억의 강력한 저장매체인 동시에 권력과 배제의 장소다.

7.4 공유 가능한 시간을 만드는 과정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같은 장소보다 같은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연결될 수 있었다. 안식일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새해와 속죄일은 멀리 떨어진 집단이 같은 서사를 비슷한 시점에 재연하게 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하나의 고정 달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성서와 제2성전기 자료에는 서로 다른 월력·연력 전통이 보이고, 쿨란 문헌의 364일 달력은 예루살렘의 월력 운영과 충돌했다 (Ben - Dov 2008). 초기에는 초승달 관측과 중앙판정, 윤달 결정, 사자와 불빛 같은 전달수단이 달력 운영에 중요했다. 디 아스포라 확대와 통신 지연은 중앙의 관측결정을 먼 지역에서 제때 따르는 데 비용을 만들었다. 계산 가능한 규칙은 그 의존을 줄였지만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힐렐 2세가 서기 358-359년에 현대 고정달력을 제정했다고 전해지지만, 835-836년 바빌로니아 문서는 오늘날 계산과 다른 절기일을 제시하고 921-922년 벤 메이르와 바빌로니아 지도자들의 논쟁은 계산과 권위의 표준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었음을 보여준다 (Stern 2001, 2019). 8

7 교육과 경제직업의 단일 인과에 대한 비판은 특히 랍비 규범을 보편적 학교 현실로 읽는 문제를 지적한다. Maristella

Botticini and Zvi Eckstein, The Chosen Few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와 관련 리뷰 목록은 연구자 자료를 보라.

8 현대 고정달력의 형성을 힐렐 2세의 한 시점으로 환원할 수 없는 근거는 Sacha Stern, Calendar and Commun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서지정보 및 The Jewish Calendar Controversy of 921/2 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를 보라.

달력은 중앙의 소멸이 곧 무규칙을 뜻하지 않는다는 결정적 사례다. 공통 계산규칙이 넓게 표준화될수록 지역 공동체는 매년 중앙의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같은 절기를 실행할 수 있었다. 공통규칙의 표준화와 지역 실행의 분산이 동시에 커진 것이다. 그러나 표준은 권위경쟁과 기술·통신의 결과였고, 카라이트 등 다른 달력 전통도 남았다. 공유 시간은 보존된 자연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였다.

7.5 죽음과 기억의 생활층

사후세계 교리는 유대교가 처음부터 하나의 고정 신조를 가졌다는 통념을 교정하는 보조 사례다. 초기 스올, 후기의 부활과 심판, 헬레니즘 환경의 영혼 담론, 랍비 문헌의 ‘다가올 세계’, 메시아 시대, 카발라의 영혼 윤회와 여러 영혼층은 시대와 문헌에 따라 다르다. 메시아 시대와 최종적 다가올 세계도 항상 같은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유대교의 사후세계관’을 단수로 요약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장례, 매장, 시신 존중, 애도기간, 카디시, 기념일과 이름의 전승은 교리적 불확실성 속에서 반복 가능한 실천을 제공했다. 죽음 뒤 무엇이 정확히 일어나는지 합의하지 않아도 산 자는 공동체의 시간 속에서 죽은 자를 기억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도 교리 동일성보다 의례와 기억의 호환성이 더 안정적인 층을 만들었다. 물론 장례관습도 시대·지역·종파마다 달랐고, 현대의 관행을 고대로 투사해서는 안 된다. 표 3 세대마다 재생산되어야 하는 대상 대상 저장매체 생활 인터페이스 실패 신호 텍스트 두루마리·필사본·인쇄·디지털 낭독·번역·학습·설교 접근비용·언어단절·해석자 부재 해석자 스승·학원·서품·법정 질문·응답·주석·판정 전문인력 단절·권위불신 행동 관습·할라카·의례 식사·휴식·기도·자선·애도 경제적 불가능·강제·습관소멸 기억 서사·예전·기념물 유월절·금식일·가족 이야기 의례의 형식화·세대 의미단절 구성원 혈통·개종·혼인·등록 양육·교육·공동체 승인 경계 충돌·배제·자기정체성 불일치 시간 관측·계산·달력 안식일·절기·공동 일정 달력분열·통신단절·노동환경 충돌

8 규범과 실제생활의 간극

8.1 랍비가 쓴 유대교와 사람들이 산 유대교

이 장은 앞선 논증을 검증하는 전환점이다. 랍비 문헌은 무엇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어떤 사례를 중요하게 분류하는지, 학자들이 어떤 권위질서를 이상화했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유대인의 평균 행동을 촬영한 사진은 아니다. 반대로 고고학도 말없는 ‘사실’이 아니다. 건축과 뼈, 그릇과 비문은 보존·표본·해석의 편향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한 자료군을 다른 자료군의 심판자로 세우기보다 서로 다른 질문을 맡겨야 한다. 핵심 구분은 다음과 같다. 규범의 존재 ≠ 규범의 접근가능성 ≠ 실제 준수 ≠ 사회적 결과 또한 다음도 구분한다. 규범 형성시점 ≠ 규범 대중화시점 그림 2 규범에서 결과까지의 비등치 검증모형 단계 물어야 할 질문 적합한 증거 건너뛰면 생기는 오류 규범 존재 언제 어떤 규칙이 문헌·비문에 나타나는가 성서, 미슈나, 탈무드, 응답, 법전 문헌 연대를 행동 연대로 착각 접근 가능 누가 어떤 언어·비용·기관을 통해 알 수 있었는가 필사본, 낭독공간, 학교, 번역, 유통망 엘리트 지식을 대중 지식으로 일반화 실제 준수 무엇을 반복적으로 했거나 피했는가 뼈, 마이크베, 석기, 건축, 계약, 개인 문서 유물의 다의성 또는 규범의 과잉 대표 사회적 결과 경계·건강·경제·성별관계·연속성 이 어떻게 변했는가 비교자료, 인구·법·경제사, 장기 시 계열 상관관계를 원인으로 오인

8.2 회당은 랍비 회당이였는가

회당은 70년 이후 갑자기 성전을 대신해 발명되지 않았다. 헬레니즘·로마기 ‘기도의 집’ 비문, 테오도 토스 비문과 일부 유적은 성전 존속기에도 집회, 경전 낭독과 교육, 숙박·자선을 포함한 기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Levine 2005). 성전이 파괴된 뒤 회당의 비중이 커졌지만, 모든 회당이 초기부터 랍비의 통제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회당의 지도자, 후원자, 지역 엘리트와 예전 담당자는 랍비 문헌의 학자와 겹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했다. 3세기 중엽 두라 에우로포스 회당의 성서 장면 벽화와 후기 고대 갈릴리 회당의 황도대·태양 도상은 단순한 무형상주의 서사와 맞지 않는다. 그것들은 현지 예술어휘, 성서서사, 후원과 공동체 정체성이 결합한 결과다. 이 도상이 랍비 규범에 대한 의도적 반항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시 형상 금지의 범위가 후대 해석과 달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대 공공공간이 획일적 시각문화를 가졌다는 주장은 반박한다. 9 회당의 좌석, 모자이크 헌사, 그리스어·아랍어·히브리어 비문은 공동체가 다언어적이었고 건축비를 낸 후원자의 위상을 기록했음을 보여준다. 여성 직함과 후원 비문

은 랍비 문헌이 드물게 조명하는 행위자를 드러내지만, 직함의 실무권한과 대표성은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 희귀 사례는 보편성의 증거가 아니라 가능공간의 증거다.

8.3 물과 돌과 뼈가 말할 수 있는 범위

미크베로 해석되는 계단식 수조의 확산은 정결 실천이 건축환경에 투자될 만큼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 백악석 그릇은 레위기적 부정 전염을 받지 않는다고 본 후대 규범과 연관될 수 있고, 하스몬·헤롯기 유다에서 두드러진다. 그러나 모든 수조가 의례용조인지, 모든 석기가 같은 정결동기에서 제작되었는지, 사용자가 어느 규정을 알았는지는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물 공급, 산업, 지역경제와 형태 분석이 필요하다 (Magness 2011; Adler 2022). 동물뼈는 식생활의 강한 지표지만 해석은 비교적이어야 한다. 유다계 유적의 돼지뼈 비율이 주변 비유다계·군사 유적보다 낮은 패턴은 돼지고기 회피와 집단경계를 지지할 수 있다. 하지만 돼지 사육의 생태비용, 시장 접근, 계층과 표본크기, 어류 뼈의 선별 보존을 통제해야 한다. ‘돼지를 먹지 않았다’는 한 금지가 확인되어도 도축, 피 제거, 고기와 젓 분리 등 전체 카슈루트 체계의 준수가 증명되지는 않는다.

9 두라 에우로포스 회당의 연대·벽화·도시 맥락은 Yale University Art Gallery의 Dura-Europos

디지털 프로젝트

와 Lee I. Levine, *The Ancient Synagogue*, 2nd ed. (Yale University Press, 2005)를 참조하라.

쿰란과 유대 광야에서 발견된 테필린 케이스와 성서 구절, 출입구와 관련된 메주자 자료는 일부 집단이 신명기 명령을 문자적 신체·건축 실천으로 구현했음을 보여준다. 문구 배열과 철자, 포함 구절의 차이는 초기 실천이 후대 표준의 완전한 복제품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유물의 생존환경이 사막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분포의 부재를 곧 실천 부재로 읽어서는 안 된다.

8.4 바바타 문서와 복수 법질서

바바타 문서 35건은 대략 서기 94년부터 132년까지의 재산등록, 혼인계약, 대출, 후견, 소송을 담는다. 문서의 언어와 양식은 그리스어·아랍어·나바테아어 환경과 로마 속주 행정, 지역 관행을 교차한다. 바바타는 랍비에게 할라카 해석을 묻는 문학적 인물이 아니라 토지와 가족 권리를 확보하려 여러 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실제 행위자로 나타난다 (Lewis 1989; Cotton and Yardeni 1997; Czajkowski 2017). 이 자료가 곧 ‘랍비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단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랍비 규범의 정확한 내용·관할과 문서양식의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더 안전한 결론은 일상 법생활이 한 규범체계의 일방적 적용보다 복수 법질서의 선택과 조합으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사회적 결과까지 묻도록 한다. 여성이 문서를 소유하고 소송한 것은 법적 행위능력의 증거지만 성평등의 증거는 아니다. 후견 분쟁과 혼인·재산 규정은 여성이 행동할 공간과 동시에 제약받는 구조를 보여준다. 개인 한 명의 풍부한 자료는 평균 여성을 대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규범문헌이 침묵시킨 실제 법적 전략의 존재를 입증한다.

8.5 요나탄 아德勒의 도전과 한계

아德勒는 질문을 과감하게 바꿨다. 토라 문헌이 언제 작성·편집되었는지가 아니라, 평범한 유다인이 토라를 최고 권위의 법으로 알고 널리 준수한 시점을 묻는다. 그는 돼지·비늘 없는 물고기 회피, 미크베, 석기, 테필린과 메주자, 형상 회피, 초막절 ‘네 종류’, 회당과 경전 낭독을 각각 역추적해, 확실한 지표가 기원전 2세기 하스몬기부터 한 묶음으로 선명해진다고 주장한다 (Adler 2022). 이 연구의 가장 큰 공헌은 ‘토라의 존재’와 ‘토라 기반 생활양식의 대중화’를 분리한 것이다. 10

10 아德勒의 책은 2022년판을 기준으로 한다. 그의 결론은 강한 데이터 종합이지만 확립 연대가 아니다. Yonatan Adler,

The Origins of Judaism (Yale University Press, 2022), 출판사 페이지; Malka Z. Simkovich, “Origin Stories”, *Jewish Review of Books* (Winter 2024).

그러나 그의 하스몬기 연대는 확립사실이 아니라 논쟁적 가설이다. 첫째, 페르시아·초기 헬레니즘기의 유다 인구와 물질문화가 빈약해 증거 부재가 단순한 표본 한계를 반영할 수 있다 (Young 2023). 둘째, 토 빛과 헤카타이오스 전승, 엘레판티네와 초기 디아스포라 문헌처럼 토라 또는 유대 관행을 가리키는 자료를 엘리트·후대 전승이라는 이유로 낮게 평가하는 방식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 (Simkovich 2024). 셋째, ‘유대교’를 토라법을 생활 전반의 최고 규범으로 아는 상태로 정의하면 민족·성전·조상·지역 관행에 기반한 더 이른 유대 정체성이 정의에서 탈락한다 (Spigel 2023). 넷째, 후대에 잘 알려진 지표들 뒤로 추적하면 초기의 다른 실천형식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들의 날짜보다 방법을 채택한다. 각 규범마다 가장 이른 문헌, 가장 이른 물질지표, 분포의 폭, 대안 설명을 따로 기록한다. 여러 독립지표가 같은 시기에 넓어질 때 대중확산의 개연성이 높아지지만, ‘그 이전에는 유대교가 없었다’고 결론짓지 않는다. 토라 중심 규범체계의 확산과 유다·이스라엘 정체성의 형성은 겹치지만 같은 사건이 아니다.

8.6 실증 자기비판의 결과

자료를 교차하면 랍비화와 토라화는 한 번의 혁명이 아니라 시기와 지역이 다른 확산곡선으로 보인다. 어떤 규범은 랍비 이전부터 널리 실행되었고, 어떤 랍비 규칙은 오랫동안 학자집단 안에 머물렀다. 어떤 회당은 랍비와 결합했고, 다른 회당은 후원자와 지역 관습이 더 중요했다. 물질자료는 다양성을 드러내지만 보존환경과 표본의 편향을 갖는다. 따라서 가장 강한 결론은 ‘랍비 문헌은 현실이 아니다’가 아니라 다음이다. 랍비 문헌은 현실을 구성하려 한 중요한 행위였지만, 그 성공 범위와 속도는 별도의 역사문제다. 표 4 규범과 실제생활의 교차검증 규범·관행 문헌 근거 물질·문서근거 확산 판정 핵심 불확실성 돼지고기 회피 레위기·신명기, 후기 문헌 유적별 동물뼈 비율 일부 지역에서 강한 지표 생태·시장·민족구성 대안 의례침수 성서 정결, 미슈나 미크 바웃 계단식 수조·배수 구조 후기 제2성전기 유다에서 두드러짐 시설 용도와 사용자 범위 석기 사용 후기 랍비 정결 논의 백악석 그릇 산업과 분포 하스몬·헤롯기 확산 개연 정결 외 기능과 사회계층 테필린·매주자 신명기, 후대 할라카 광야 케이스·성서 조각 일부 집단의 문자적 실천 확립 사막 보존편향·표준 이전 다양성 형상 규제 십계명·랍비 논의 동전·회당 벽화·모자이크 선택적·맥락별 실행 금지대상 해석과 후원자 취향

규범·관행 문헌근거 물질·문서근거 확산 판정 핵심 불확실성 회당 경전낭독 요세푸스·필론·랍비 자료 비문·건축·좌석·토라 퀘 1세기부터 일부 확립, 후기 확대 초기 건물 기능과 랍비 통제 여성 회당 역할 랍비 문헌의 제한적 언급 직함·후원 비문 존재는 확립, 빈도·권한은 논쟁 명예직과 실무권한 구분 혼인·재산법 성서·미슈나·탈무드 바바바·살로메 문서 복수 법질서의 실제화 사례 대표성과 관찰권

9 근대의 재구성

9.1 해방이 만든 새로운 취약성

근대 이전의 유대 공동체는 국가 없는 자율질서의 일부 기능을 수행했다. 법정, 세금, 자선, 교육, 혼인 승인과 종교 제재가 개인의 소속을 촘촘히 조직했다. 유럽의 시민권 확대와 법적 해방은 차별을 줄이고 직업·거주·교육의 선택을 넓혔지만, 공동체가 개인을 강제로 붙들 수 있는 권한도 약화시켰다. 자유의 확대는 전통의 소멸을 필연적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세대재생산을 ‘환경이 대신 해주는 일’에서 개인과 가족이 반복해서 선택하고 정당화해야 하는 일로 바꾸었다. 하스칼라는 히브리어와 세속학문, 시민적 통합과 교육개혁을 추구한 복수 운동이었다. 모든 마스킬이 종교를 버리거나 같은 정치노선을 택한 것은 아니다. 인쇄, 신문, 근대 학교와 국가 언어는 전통지식의 유통경로를 넓히는 동시에 랍비와 공동체의 지식 독점을 흔들었다 (Feiner 2004). 계몽과 해방은 ‘전통 대 근대’의 외부 충돌만이 아니라, 어떤 텍스트와 관습이 왜 권위를 갖는지를 내부에서 다시 묻게 했다.

9.2 종파는 규칙의 양보다 변화의 규칙에서 갈라졌다

개혁 유대교는 예언자적 윤리, 보편주의, 현대 예배와 시민적 소속을 강조하며 성전희생의 회복, 식이·의복과 일부 의례 규범을 역사적 형식으로 재평가했다. 그러나 개혁의 모습도 독일 초기와 미국, 20세기 후반의 의례 회복에서 달라졌다. ‘법을 버린 유대교’라는 요약은 변화의 내부 논리와 후대 변화를 지운다 (Meyer 1988).

근대 정통 유대교는 단순히 옛 유대교가 변화 없이 남은 것이 아니다. 종파경쟁, 국가교육, 시민권과 역사비평 앞에서 토라와 할라카의 전면적 권위를 의식적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학교, 협회, 언론과 지도체계를 구축한 근대적 반응

이었다 (Katz 1973). 솔로베이치이 미국 정통의 일부에서 관찰한 ‘ 단절과 재구 성 ’ 은 가정 · 지역의 모방적 전승 이 약해질수록 책과 학교, 명시적 규칙과 엄격성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Soloveitchik 1994). 이것을 모든 정 통 유대교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정통성도 매체 변화 속에서 생산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보수 또는 마소르티 유 대교는 할라카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역사적 발전과 공동체 판정을 통해 변화를 정당화하는 중간 메타규칙을 발전시켰다. 이 역시 개혁과 정통 사이의 단순 절충이 아니라, 전통과 역사비 평 · 현대사회 사이 관계를 조직하는 독자적제 도와 법위원회를 만들었다. 각 종파의 가장 깊은 차이는 ‘ 규칙 을 얼마나 많이 지키는가 ’ 뿐 아니라 무엇을 바꿀수 있고, 누가 어떤 근거로 바꿀 수 있는가에 관한 메타규 칩에 있다.

9.3 세속적 · 문화적 유대성

근대 국민국가, 이디시 · 히브리 문화, 사회주의, 문학, 시오니즘과 홀로코스트 기억은 신앙고백이나 할 라카 준수 없 이도 강한 유대 정체성을 가능하게 했다. 세속적 유대인은 종교의 실패 사례가 아니라 ‘ 유대 인 ’ 이 신앙만으로 정 의되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준다. 무신론자도 가족계보, 언어, 음식, 기억, 반 유대주의의 경험, 이스라엘과 의 관계를 통해 유대인으로 자신을 이해하거나 타인에게 분류될 수 있다. 이 다층성 때문에 유대교라는 종교와 유대 인이라는 역사공동체를 일치시키면 안 된다. 동시에 문화적 소속은 자동 재생산되지 않는다. 언어가 사라지고 의례 · 교육 · 공동체가 약해지면 기억은 몇 세대 만에 얇아질 수 있다. 반대로 종교적 준수 없이도 박물관, 학교, 문학, 음 식, 가계연구와 홀로코스트 기념이 새로운 전승매체가 될 수 있다. 근대는 전통의 종말보다 전승채널의 다변화와 선택화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9.4 누가 유대인인가

전통은 내용뿐 아니라 그 내용을 이어받을 구성원을 재생산해야 한다. 유대인의 자격은 적어도 네 층 으로 갈라진다. 첫째는 개인의 자기정체성, 둘째는 특정 회당 · 종파 · 지역 공동체의 승인, 셋째는 전통 할라 카의 출생 · 개종 기준, 넷째는 현대 국가의 시민 · 이민 · 혼인 행정분류다. 이 층들은 종종 일치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전통 랍비법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난 사람 또는 유효하게 개종한 사람을 유대인으로 분류한다. 모계 기준의 정확 한 형성 시기와 이유는 논쟁적이며, 성서시대 전체에 곧바로 투사할 수 없다 (Cohen 1999; Hayes 2002). 개종은 신앙 동의만이 아니라 학습, 의례, 공동체 수용과 법적 지위 변화의 과정이었다. 현 대 종파는 개종 요건과 부계 혈통 인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한 종파가 인정한 개종을 다른 종파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혼인은 이 경계가 다음 세대 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핵심 인터페이스다. 배우자 선택, 자녀교육, 성과 이 름, 축제 참여, 회당 소속과 친족 승인이 결합한다. 혼인 외 결합과 다종교 가족의 증가는 정체성 소멸만이 아니라 새로운 협상과 이중 참여를 만들기도 한다 (Fishman 2004). 결과를 일률적으로 동화 또는 생존으 로 판정하기보다 어떤 실천과 소속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지 보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귀환법은 유대인 본인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자녀 · 손자와 배우자에게 이민 자격을 넓 혀, 종교법상 유대인 범주보다 넓게 작동할 수 있다. 반면 종교혼인과 일부 신분문제에서는 정통 랍비 기관의 기준이 더 좁게 적용된다. 따라서 같은 사람이 국가에는 귀환 자격자이지만 특정 종교법정에는 유대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자기정체성, 공동체 인정, 국가적 분류의 불일치는 예외적 혼란이 아니라 근대 유 대성의 구조적 특징이다.

11

9.5 근대의 결과

근대화는 중앙을 없애기보다 여러 중앙을 만들었다. 국가, 종파 본부, 랍비학교, 언론, 대학, 박물관, 정당과 가족이 서로 다른 권위를 주장했다. 공통 토라와 기억은 남았지만 해석규칙과 구성원 경계의 메타 규칙이 갈라졌다. 연속성 은 더 이상 공동체 강제력에만 기댈 수 없었고, 교육 · 선택 · 제도 서비스와 감정적 소속이 중요해졌다. 개인 자유는 전통의 적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이었지만, 그 조건에서 세대재생산은 더 의식적이고 불확실한 프로젝트가 되었다.

11 귀환법상 이민 자격과 랍비 법정의 유대인 지위는 목적과 적용기관이 다르다. 이스라엘 의회 영문 귀환법.

10 국가와 파국과 기억

10.1 시오니즘과 유대교를 분리하고 연결하기

시오니즘은 유대교와 동일하지 않다. 그것은 19세기 말 유럽의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제국질서와 유대 정치사상이 만난 근대 운동이며, 정치적·문화적·노동·수정주의·종교 시오니즘 등 서로 다른 흐름을 포함 한다 (Avineri 1981; Penslar 2023). 일부 정통 유대인은 인간의 정치행동으로 메시아적 귀환을 앞당기는 데 반대했고, 다른 종교 시오니스트는 국가건설을 신학적 의미와 결합했다. 비종교적 시오니스트도 시온, 예루살렘, 히브리어와 성서의 기억을 국민적 상징으로 재사용했다. 시오니즘의 구조적 전환은 디아스포라 적응에 대한 평가였다. 수세기 동안 지역 자율성과 장거리 네트워크는 국가 없는 유대 생활을 가능하게 했지만, 근대 민족국가와 포그롬·반유대주의 앞에서는 정치적 취약성과 타인의 보호에 대한 의존으로 재평가되었다. ‘디아스포라의 부정’은 유대인이 자기방어·노동·언어·영토를 회복해야 한다는 여러 프로그램을 낳았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국가가 생긴 뒤에도 디아스포라는 소멸하지 않았다. 미국·유럽·남미·호주와 다른 지역의 공동체는 독자 제도와 이스라엘에 대한 다양한 관계를 유지한다. 재영토화와 비영토적 전승은 경쟁하면서도 병존한다. 종교적 시온 기억과 근대 영토·민족 프로젝트는 동일하지 않지만 분리될 수도 없다. 기도와 유월절의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애도와 땅의 계명은 오랜 상징자원을 제공했다. 근대 시오니즘은 이를 외교, 이주, 토지매입, 군사조직, 히브리어 교육과 국가제도로 번역했다.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상징적 고향이 정치적 주권의 프로젝트와 다시 접합된 것이다. 이 접합은 필연적 성취가 아니라 경쟁 사상과 국제정치, 이 주민의 노동, 전쟁과 제국 해체의 결과였다.

10.2 역사적 주장과 정치적 정당성을 구분하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역사를 이 논문의 중심으로 확장하지 않으면서도 네 층을 구분해야 한다. 첫째, 유대인에게 에레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장기간 종교·역사 기억의 핵심이었다. 둘째, 팔레스타인 아랍인은 오스만기와 영국 위임통치기를 포함해 그 땅에서 장기 거주와 사회·정치 생활을 형성했고, 근대 팔레스타인 정체성은 장소와 제국 변동, 시오니즘과 충돌 속에서 발전했다 (Khalidi 1997). 셋째, 20세기 유대 국가형성은 이민, 조직, 외교, 전쟁과 국제결정의 역사적 과정이었다. 넷째, 그 과정과 1948년 전쟁은 팔레스타인인의 대규모 이주·추방과 상실을 낳았다.

이 네 사실층에서 어느 한쪽의 정치적 정당성이 자동으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성서적 약속을 현대 국가주권의 단순한 법적 필연으로 만들거나, 팔레스타인인의 장기거주와 상실을 지우는 것은 역사서술이 아니다. 반대로 유대인의 역사적 연결과 근대 반유대주의·난민 경험을 허구로 만드는 것도 부정확하다. 본 연구가 필요한 지점은 권리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비영토 전승이 국가주권과 재결합할 때 생기는 새로운 권위·경계 문제다.

10.3 국가 없는 규범과 국가법의 재접합

할라카는 오랫동안 제국과 도시의 법 아래에서 제한된 공동체 자율규범으로 작동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이 다수인 주권국가가 군대, 조세, 토지, 의료, 노동, 시민권과 형사법을 운영한다. 이는 고전 법문헌이 상정하지 않았던 규모와 강제력을 낳았다. 안식일 공공교통, 카슈루트, 혼인과 이혼, 개종, 군복무, 땅과 전쟁윤리를 두고 국가법·민주적 시민권·종교법이 충돌한다. ‘유대 국가’라는 말도 종교국가, 유대인 다수의 민족국가, 모든 시민의 민주국가라는 의미를 동시에 품는다. 행정상 국적·이민 자격, 종교법상 유대인 지위, 개인의 문화정체성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과거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끝낸 것이 아니라, 구성원 판정과 규범 집행에 국가강제력이 다시 결합될 때 생기는 문제를 추가했다. 중앙의 귀환은 분산 전승을 폐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계 유대 공동체와 국가 사이 새로운 재동기화·불일치의 회로를 만들었다.

10.4 홀로코스트는 시오니즘의 단순 원인이 아니다

정치적 시오니즘과 여러 이주·정착 조직은 홀로코스트 수십 년 전에 존재했다. 따라서 홀로코스트가 시오니즘을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유럽 유대인의 대량학살과 전후 난민위기는 국가 없는 취약성에 대한 주장을 극적으로 강화하고 국제정치와 이주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원인, 가속, 정당화와 기억을 한 단어로 합치면 역사적 시간 순서와 행위자의 다양성이 사라진다. 홀로코스트는 또한 본 연구의 회복탄력성 모델을 시험하는 가장 가혹한 반례다. 약 6백만 유대인의 살해는 ‘공동체가 결국 살아남았다’는 결론으로 상쇄되지 않는다. 유럽의 수많은 도시와 마을, 언어와 학교, 랍비계보, 가족, 음악과 관습은 돌아오지 않았다. 살아남은 전통은 죽은 사람의 복구가 아니다. 체계의 생존 ≠ 손실의 복구라는 명제는 수사적 겸손이 아니라 분석단위의 차이이다.

10.5 신정론의 한계와 기억의 윤리

바빌론 파괴를 해석한 죄·심판·회복 공식은 홀로코스트 앞에서 윤리적 위험을 드러낸다. 학살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신벌로 설명하면 피해자를 원인으로 만들고, 나치 국가와 협력자·방관자의 계획과 선택을 신적 도구라는 말 뒤에 숨길 수 있다. 자유의지론은 인간 가해자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전능한 신의 허용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신의 숨음’은 부재의 경험을 표현하지만 왜 그 숨음이 극단적 악을 허용했는지 남긴다. 루벤스타인의 급진적 신학, 파켄하임의 역사적 명령, 브라이터먼의 반신정론은 서로 다른 답을 주지만, 모두 전통적 설명의 단순 반복이 불가능하다는 압력을 증언한다 (Rubenstein 1992; Fackenheim 1982; Braiterman 1998). 12 읊기는 이 지점에서 다시 읽힌다. 친구들은 고통을 설명해 질서를 보존하려 하지만 그 설명이 고통받는 이를 정죄한다. 읊의 향의는 설명의 실패를 신앙 밖으로 추방하지 않는다. 회복탄력성은 모든 충격을 기존 이론 안에 흡수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충격 앞에서 기존 설명을 수정하거나 적용을 중지하는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 체계의 생존 ≠ 진리, 체계의 생존 ≠ 정의다. 오래 지속된 설명도 거짓이거나 해로울 수 있고, 도덕적 자기제한은 약함이 아니라 피해자 비난을 막는 규칙이 될 수 있다. 기억의 윤리는 파국을 현재 정체성의 자원으로만 소비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기념관, 증언, 이름 낭독, 기념일과 교육은 죽은 자를 집단 서사의 상징으로만 만들지 않고 개별 삶과 가해 구조를 기록해야 한다 (Young 1993). 신학적 의미를 묻는 일과 역사적 책임을 밝히는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 가해자, 기관, 법, 재산약탈과 살해의 과정은 인간 역사로 조사해야 하며, 신학이 그 인과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10.6 국가와 파국이 남긴 이중 결과

20세기 이후 유대교는 영토와 주권을 다시 획득한 집단의 종교인 동시에, 세계 각지 소수공동체의 전통이다.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는 피난처와 히브리어 공공문화, 종교제도의 새로운 능력을 만들었지만 시민권·팔레스타인 문제·종교강제·누가 유대인인가를 둘러싼 새로운 중앙화 갈등도 만들었다. 홀로코스트 기억은 세계 유대인의 강한 공통참조점이 되었지만 경험의 다양성과 정치적 사용을 둘러싼 논쟁도 낳았다. 재영토화는 디아스포라의 종결이 아니라 두 조직양식의 병존이다.

12 신정론의 분류는 어느 한 입장을 정답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이 피해자 비난으로 변하는 경계를 밝히기 위

한 것이다. Zachary Braiterman, (God) after Auschwitz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서지정보; Richard L. Rubenstein, After Auschwitz, 2nd e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서지정보.

11 종합논의

11.1 중심이 아니라 기능을 추적하기

유대교의 장기사를 ‘성전의 시대, 책의 시대, 랍비의 시대’로 나누면 시대마다 하나의 중심이 차례로 교체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변화는 중첩적이었다. 토라는 성전과 함께 있었고, 회당은 성전 파괴 전에 존재했으며, 가정 의례는 왕국기부터 작동했다. 성전이 사라진 뒤에도 제사장 계보와 성전 언어는 남았다. 랍비 권위가 커진 뒤에도 지역 관습, 후원자, 가족과 국가법은 독립적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분석단위는 ‘어느 기관이 지배했는가’만이 아니라 어느 기능을 누가 어떤 매체로 수행했는가여야 한다. 기능 관점은 연속성과 단절을 동시에 기록한다. 속죄의 언어와 공동체 회합은 다른 매체로 이어졌지만 실제 희생은 중단되었다. 성전 달력의 중앙판정은 계산규칙으로 분산될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장소성은 기도와 애도의 결핍으로 남았다. 왕·제사장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학습 기반 전문권위가 성장했지만, 세습 권위가 단번에 사라진 것도 모든 공동체가 랍비에게 복종한 것도 아니다. 무엇이 이동했고 무엇이 소멸했는지를 함께 쓰면 ‘기능이전’이 진보서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11.2 다섯 변수의 결합

첫째는 기능의 다중매체 재배치다. 하나의 중심이 무너질 때 여러 기능을 한 후계기관에 몰아넣지 않고, 기도·학습·회당·가정·자선·달력·법정으로 나누었다. 이 분산은 동시에 여러 경로가 작동하는 중복성을 만들었지만, 손실 없는 복제가 아니었다. 둘째는 공통 참조체계와 해석 생성·판정 절차다. 토라, 이스라엘 기억, 예루살렘과 후대 랍비 문헌은 서로 다른 집단이 논쟁할 공통 대상을 제공했다. 미슈나·탈무드는 결론뿐 아니라 질문, 분류, 선례, 반례와 논쟁경로를 보존했고, 법전과 응답은 실행을 위해 판정을 압축했다. 같은 책을 가진 사실보다 그 책으로 서로를 반박하고 승인할 수 있는 규칙이 중요했다. 셋째는 다중채널 세대전승이다. 서기관·랍비·학교라는 공식 채널과 가정·여성·식탁·몸·노래·애도라는 비공식 채널이 겹쳤다. 하나의 채널이 약해져도 다른 채널이 기억과 행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노동은 성별·계층 권력과 경제적 능력에 의존했다. 문헌만 남고 실천자가 사라지거나, 습관만 남고 의미의 언어가 끊기면 연속성은 얇아졌다.

넷째는 시간과 네트워크의 재동기화다. 달력은 멀리 떨어진 공동체가 같은 서사를 비슷한 시점에 재연 하게 했고, 응답문학·서신·상업망·인쇄는 지역문제를 공통 해석공간으로 되돌렸다. 표준화는 중앙집행을 반드시 키우지 않았다. 계산 가능한 공통규칙은 오히려 지역 실행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반대로 도로·종이·우편·시장·안전이 무너지면 규칙은 이동하지 못했다. 다섯째는 구성원 경계의 반복적 재판정이다. 혈통, 모계 기준, 개종, 혼인, 양육, 자기정체성, 공동체와 국가의 승인은 누가 전통을 이어받는지 정했다. 경계가 너무 닫히면 인구와 접근을 잃고, 너무 불분명하면 상호인식과 제도적 재생산이 약해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유대 공동체는 하나의 균형점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다른 경계조합을 사용했다. 이 다섯 변수는 더하기 목록이 아니다. 기능이 분산되어도 공통 참조와 동기화가 없으면 파편화된 채로 남는다. 참조문헌이 있어도 교육과 생활 접근이 없으면 엘리트 아카이브로 남는다. 가정 전승이 강해도 배우자·자녀·개종자의 경계를 다룰 제도가 없으면 세대마다 소속 갈등이 커진다. 달력이 같아도 공동체가 학살되면 전승은 끝난다. 연속성은 각 변수의 존재보다 연결의 작동에서 나온다.

11.3 상호인식 가능성의 기준

완전한 동일성이 없는데도 ‘하나의 전통’이라고 말하려면 최소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네 가지 관찰지표를 제안한다. 첫째, 서로 다른 집단이 토라·이스라엘·출애굽·예루살렘을 승인 또는 비판의 공통 참조 점으로 사용하는가. 둘째, 논쟁을 번역할 수 있는 법적·서사적·의례적 어휘가 있는가. 셋째, 달력·혼인·개종·교육·자선을 통해 집단 간 실제 접촉과 조정이 가능한가. 넷째, 행위자 자신과 경쟁자가 서로를 유대교 내부의 차이 또는 경계사례로 분류하는가. 이 기준은 중심과 주변을 고정하지 않는다. 카라이트와 라반파, 철학자와 카발리스트, 개혁과 정통은 서로를 심각하게 부정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상호 파문과 혼인 불인정으로 호환성이 무너지기도 한다. 따라서 ‘상호인식 가능성’은 따뜻한 공존을 뜻하지 않는다. 갈등이 같은 논쟁공간 안에서 일어나는지, 아니면 상대가 완전히 외부로 분류되는지를 묻는 기술적 개념이다.

11.4 기능이전의 인과연쇄

장기 변화는 다음과 같은 반복 구조를 보인다. 기존 중심이 높은 통합력을 제공한다 → 전쟁·이주·근대화가 중심의 일부 기능을 파괴하거나 약화한다 → 이미 주변에 존재하던 텍스트·가정·회당·학습·네트워크가 기능을 나누어 맡는다 → 지역차와 권위경

쟁이 커진다 → 정전, 법전, 응답, 달력, 학교가 차이를 다시 조정한다 → 표준화가 새로운 경직성과 배제를 만든다 → 다음 충격이 다시 조직양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 연쇄에서 ‘문제 → 해결 → 새로운 제약’이 계속된다. 토라의 문자화는 장소를 넘어 전승할 수 있게 했지만 문해력과 해석자 의존을 만들었다. 랍비의 전문권위는 세습 제사장과 다른 이동성을 가졌지만 학자 엘리트의 과대표를 낳았다. 응답문학은 지역을 연결했지만 권위와 통신비용에 의존했다. 고정달력은 동기화를 쉽게 했지만 경쟁 달력의 정당성을 좁혔다. 근대의 개인 자유는 강제력을 약화했지만 전승을 선택적 프로젝트로 만들었다. 어느 장치도 순수한 해결책은 아니다.

11.5 생존모델의 자기제한

본 연구의 설명이 성공할수록 세 가지 오해를 막아야 한다. 첫째, 생존성은 진리의 증거가 아니다. 오류이거나 억압적인 체계도 제도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둘째, 생존성은 정의의 증거가 아니다. 경계를 강하게 재생산하는 제도가 내부 약자나 외부인을 부당하게 대할 수 있다. 셋째, 체계의 생존은 손실의 복구가 아니다. 살아남은 문헌과 공동체는 파괴된 생명·장소·언어·관습을 대체하지 못한다. 홀로코스트는 이 자기제한을 이론의 바깥 각주가 아니라 내부 변수로 만든다. 모든 충격을 기존 신학에 흡수할 수 있다는 능력은 오히려 도덕적 실패일 수 있다. 회복탄력

성에는 설명을 멈추고, 피해자의 항의를 보존하며, 인간 가해자의 책임을 신학적 의미와 분리하는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통이 자기 설명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을 때 변화는 단순 자기보존을 넘어 윤리적 학습이 될 가능성을 얻는다.

12 반례와 한계

12.1 지역 공동체는 실제로 사라졌다

‘ 유대교가 살아남았다 ’ 는 주어는 지나치게 크다. 잉글랜드, 스페인과 포르투갈, 중 · 동유럽의 수많은 지역, 중동 · 북아프리카의 오래된 공동체는 추방 · 개종 · 이주 · 학살로 해체되었다. 일부 구성원이 다른 곳에서 의례를 재구성했다라도 장소에 결합된 언어, 묘지, 음악, 직업망과 이웃관계는 복구되지 않았다. 거시적 연속성은 미시적 단절의 합 위에 있다. 이 모델은 생존한 계보만 표본으로 삼는 생존편향을 상시 경고해야 한다.

12.2 박해는 파괴적이었다

박해가 내부 결속을 높이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외부 위협이 경계를 선명하게 하고 자선과 기억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부 효과이지 일반법칙이 아니다. 폭력은 지도자와 어린이, 문헌, 경제기반을 파괴하고 공포와 강제개종, 장기 트라우마를 남겼다. 공동체 규모와 연결망이 임계점 아래로 떨어지면 결속할 집단 자체가 사라진다. ‘ 고난이 유대인을 강하게 했다 ’ 는 문장은 피해를 기능으로 미화하므로 버려야 한다.

12.3 자료는 엘리트와 건조한 지역을 더 잘 보존한다

히브리성서와 랍비 문헌, 철학 · 카발라 저술은 문해 엘리트가 편집하고 후대가 가치 있다고 판단해 복사한 자료다. 평민, 여성, 어린이, 이견자와 종교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은 과소대표된다. 파피루스와 가죽, 나무는 유대 광야와 이집트 같은 건조환경에서 더 잘 남고, 도시 재건은 다른 유적을 지웠다. 비문을 세울 수 있는 후원자는 가난한 구성원을 대표하지 않는다. 자료의 침묵은 실천 부재일 수도 있지만 보존 부재일 수도 있다.

12.4 물질지표도 규범의 이름표가 아니다

미크베처럼 보이는 수조, 돼지뼈 부족, 석기와 벽화는 다의적이다. 연구자가 이미 알고 있는 규범을 유물에 투사하면 고고학은 문헌의 삽화가 된다. 반대로 문헌과 다른 유물을 발견했다고 곧바로 반항이나 세속화로 읽어도 안 된다. 기능, 사용흔적, 지역 비교, 연대, 대안설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아德勒의 연구는 이 교차검증을 크게 진전시켰지만, 전하스몬기의 침묵을 부재로 읽는 정도는 계속 논쟁해야 한다.

12.5 여성과 가족을 기능으로만 환원할 위험

가정전승을 강조하면 여성의 무급 · 비가시적 노동을 연속성의 자원으로 칭찬하면서 그 제약을 정당화할 수 있다. 여성은 전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며, 실제 선택과 갈등, 경제 · 법적 활동을 가진 행위자였다. 남성 랍비 문헌의 여성 규정과 여성의 실제 경험을 구분하고, 희귀한 여성 지도자 비문도 대표성 없이 영웅서사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12.6 국가주권은 새 중앙화 문제를 만든다

본 연구의 대부분은 소수자 · 디아스포라 조건에서 형성된 전승장치를 다룬다. 현대 이스라엘의 국가주권은 규범이 시민 전체에 미치는 강제력, 비유대 시민의 권리, 영토 · 군사 · 경제 결정을 포함한다. 공동체 자율성에 적합했던 규칙이 국가법의 정당성을 자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 기능 재배치 ’ 모델만으로 현대 민주주의와 점령, 전쟁, 시민권의 규범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2.7 비교의 한계

2천 년이 넘는 시기를 같은 변수로 비교하면 개념이 시대차를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 ‘ 유대교 ’, ‘ 법 ’, ‘ 종교 ’, ‘ 민족 ’ 자체가 각 시대에 같은 의미가 아니었다. 본 연구의 변수는 인과를 자동 증명하는 수학모형이 아니라 질문을 정렬하는 비교도구다. 각 시대의 전문 연구가 변수 사이 실제 연결을 입증해야 하며, 다른 종교전통에 적용

할 때도 동일한 결과를 전제해서는 안 된다.

13 결론

유대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중심이 없어도 종교는 살아남는다’는 간단한 교훈이 아니다. 유대교에는 언제나 중심이 있었다.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권이었고, 때로는 바빌로니아 학원과 탈무드, 지역 회당과 공동체, 인쇄된 법전, 가정의 식탁, 달력, 현대 국가와 세계 조직이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의 부재보다 중심의 복수화와 재접속이었다. 두 성전의 파괴 뒤 살아남은 것은 건물이나 의례의 동일한 복제품이 아니었다. 출애굽과 언약의 기억, 토라라는 공통 참조점, 질문과 반례를 다루는 해석습관, 몸과 식탁에 새겨진 반복 의례, 멀리 떨어진 공동체를 맞추는 달력과 서신, 누가 다음 세대의 구성원인지를 판정하는 경계가 서로 다른 매체에서 작동했다. 그 덕분에 한 채널이 무너져도 모든 기능이 동시에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채널의 중복성은 도로, 중 이, 교육, 경제, 가족노동과 정치적 안전이라는 조건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유대교는 중심을 잃고도 살아남은 종교라기보다, 중심이 무너질 때마다 종교의 기능을 다른 사람·매체·공간·시간으로 불완전하게 옮기고, 무엇을 바꾸어도 여전히 같은 전통인지 계속 판정해 온 역사적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불완전하게’라는 말이 핵심이다. 기도는 희생을 복구하지 않았고, 텍스트는 죽은 공동체를 되살리지 않았으며, 국가는 디아스포라를 끝내지 않았다. 연속성은 손실이 없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손실 뒤에도 새로운 행동과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제한된 서술이다.

이 사례가 장기 지속하는 종교전통 일반에 제안하는 분석법은 다섯 질문이다. 핵심 기능이 몇 개 매체에 분산되어 있는가. 공통 참조점뿐 아니라 새 사례를 판정할 절차가 전승되는가. 전문기관과 가정·몸·일상 사이에 실제 접근 경로가 있는가. 달력과 네트워크가 지역차를 다시 동기화하는가. 누가 구성원인지를 세대마다 어떤 기준으로 재생산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체계는 어떤 파국 앞에서 기존 설명을 수정하거나 멈출 수 있는가. 적용범위도 분명하다. 이 분석은 유대교의 진리, 국가정책의 정당성, 특정 종파의 우월성을 판정하지 않는다. 다른 종교가 같은 경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장기 연속성을 불변성과 혼동하지 않고, 규범의 존재에서 생활의 결과까지 실제 인터페이스를 추적하며, 생존을 손실·진리·정의와 구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성전이 사라졌는데도 종교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성전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재를 기억하면서도 일부 기능을 다른 삶의 장소들에 나누어 실어야 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과 주요 원전

1차 자료와 자료집

『히브리서』. 마소라 본문. 특히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2·19-24장, 레위기, 신명기 5-6·12장, 열왕기 하 22-25장, 이사야 40-55장, 예레미야, 에스겔, 욥기, 다니엘 12장.

『미슈나』. 특히 Berakhot, Shabbat, Pesachim, Yoma, Eduyot, Avot, Kelim, Mikvaot, Niddah. Sefaria

원문과 번역

『바빌로니아 탈무드』 및 『팔레스타인 탈무드』. Sefaria

텍스트 컬렉션

Josephus. The Jewish War; Jewish Antiquities. In The Works of Josephus, Loeb Classical Library. Perseus Digital Library

Philo of Alexandria. On the Special Laws; On the Creation; The Embassy to Gaius. Loeb Classical Library.

Garc a Mart nez, Florentino, and Eibert J. C. Tigchelaar, eds. 1997-1998. í í The Dead Sea Scrolls Study Edition. 2 vols. Leiden: Brill.

Lewis, Naphtali, ed. 1989. The Documents from the Bar Kokhba Period in the Cave of Letters: Greek Papyri.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Cotton, Hannah M., and Ada Yardeni, eds. 1997. Aramaic, Hebrew and Greek Documentary Texts from Na al ever and Other Sites ה ה .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27. Oxford: Clarendon Press. NYU

보존본

Yadin, Yigael, Jonas C. Greenfield, Ada Yardeni, and Baruch A. Levine, eds. 2002. The Documents from the Bar Kokhba Period in the Cave of Letters: Hebrew, Aramaic and Nabatean - Aramaic Papyri.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State of Israel. 1950, amended 1970. Law of Return. Knesset

영문본

Yale University Art Gallery. Dura - Europos: Excavating Antiquity. 디지털 컬렉션 연구문헌

Ackerman - Lieberman, Phillip I. 2013. Review of *The Chosen Few*, by Maristella Botticini and Zvi Eckstei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73 (1). 도서와 리뷰 목록

Adler, Yonatan. 2022. *The Origins of Judaism: An Archaeological - Historical Reappraisa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출판사 페이지

Albertz, Rainer. 1994.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2 vols. Translated by John Bowde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서지정보

Albertz, Rainer. 2003. *Israel in Exile: The History and Literature of the Sixth Century B.C.E.*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서지정보

Alexander, Elizabeth Shanks. 2006. *Transmitting Mishnah: The Shaping Influence of Oral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Assmann, Jan. 2006. *Religion and Cultural Memory: Ten Studies*. Translated by Rodney Livingston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Avineri, Shlomo. 1981. *The Making of Modern Zionism: The Intellectual Origins of the Jewish State*. New York: Basic Books. 서지정보

Barstad, Hans M. 1996. *The Myth of the Empty Land: A Study in the History and Archaeology of Judah during the Exilic Period*. Oslo: Scandinavian University Press.

Ben - Dov, Jonathan. 2008. *Head of All Years: Astronomy and Calendars at Qumran in Their Ancient Context*. Leiden: Brill. 서지정보

Bloom, Jonathan M. 2001. *Paper before Print: The History and Impact of Paper in the Islamic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A&AePortal

Botticini, Maristella, and Zvi Eckstein. 2012. *The Chosen Few: How Education Shaped Jewish History, 70 – 1492*.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도서 페이지

Boyarín, Daniel. 2015. *A Traveling Homeland: The Babylonian Talmud as Diaspor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Braiterman, Zachary. 1998. *(God) after Auschwitz: Tradition and Change in Post - Holocaust Jewish Though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Brody, Robert. 1998. *The Geonim of Babylonia and the Shaping of Medieval Jewish Cultu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JSTOR Books

Brooten, Bernadette J. 1982. *Women Leaders in the Ancient Synagogue: Inscriptional Evidence and Background Issues*. Chico, CA: Scholars Press. 서지정보

Chazan, Robert. 2014. Review of *The Chosen Few*, by Maristella Botticini and Zvi Eckstein. *American Historical Review* 119. 리뷰 논쟁 개요

Cohen, Mark R. 1994. *Under Crescent and Cross: The Jews in the Middle Ag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Cohen, Shaye J. D. 1984. “The Significance of Yavneh: Pharisees, Rabbis, and the End of Jewish Sectarianism.” *Hebrew Union College Annual* 55: 27 – 53.

Cohen, Shaye J. D. 1999. *The Beginnings of Jewishness: Boundaries, Varieties, Uncertaint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출판사 페이지

Cohen, Shaye J. D. 2006. *From the Maccabees to the Mishnah*. 2n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서지정보

Collins, John J. 2010. *Beyond the Qumran Community: The Sectarian Movement of the Dead Sea Scrolls*. Grand Rapids: Eerdmans. 서지정보

Collins, John J. 2016. *The Apocalyptic Imagination: An Introduction to Jewish Apocalyptic Literature*. 3rd ed. Grand Rapids: Eerdmans. 서지정보

Czajkowski, Kimberley. 2017. *Localized Law: The Babatha and Salome Komaise Archi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연구정보

Day, John. 2002. *Yahweh and the Gods and Goddesses of Canaan*. London: Sheffield Academic Press. 서지정보

Eliav, Yaron Z. 2023. *A Jew in the Roman Bathhouse: Cultural Interaction in the Ancient Mediterranea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Fackenheim, Emil L. 1982. *To Mend the World: Foundations of Post - Holocaust Jewish Thought*. New York: Schocken. 서지정보

Feiner, Shmuel. 2004. *The Jewish Enlighten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서지정보

- Fishman, Sylvia Barack. 2004. *Double or Nothing? Jewish Families and Mixed Marriage*. Hanover, NH: Brandeis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Fishman, Talya. 2011. *Becoming the People of the Talmud: Oral Torah as Written Tradition in Medieval Jewish Culture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Goldberg, Jessica L. 2012. *Trade and Institutions in the Medieval Mediterranean: The Geniza Merchants and Their Business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Goitein, S. D. 1967 – 1993. *A Mediterranean Society: The Jewish Communities of the Arab World as Portrayed in the Documents of the Cairo Geniza*. 6 vo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서지정보
- Goodman, Martin. 2018. *A History of Juda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Grabbe, Lester L. 1995. *Priests, Prophets, Diviners, Sages: A Socio - Historical Study of Religious Specialists in Ancient Israel*.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 Green, Arthur. 2004. *A Guide to the Zoh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Gruen, Erich S. 2002. *Diaspora: Jews amidst Greeks and Roma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출판사 페이지
- Halbertal, Moshe. 1997. *People of the Book: Canon, Meaning, and Author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출판사 페이지
- Halbertal, Moshe. 2013. *Maimonides: Life and Though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milton, Gordon J. 1998. “New Evidence for the Authenticity of b t in Hebrew Personal Names and for Its Use as a Divine Epithet in Biblical Texts.”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0.
- Hayes, Christine E. 2002. *Gentile Impurities and Jewish Identities: Intermarriage and Conversion from the Bible to the Talmu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Hezser, Catherine. 1997. *The Social Structure of the Rabbinic Movement in Roman Palestine*. Tübingen: Mohr Siebeck. DOI
- Hezser, Catherine, ed. 2010. *The Oxford Handbook of Jewish Daily Life in Roman Palesti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Honigman, Sylvie. 2003. *The Septuagint and Homeric Scholarship in Alexandria: A Study in the Narrative of the Letter of Aristaeas*. London: Routledge. 서지정보
- Huss, Boaz. 2016. *The Zohar: Reception and Impact*. Oxford: Littman Library of Jewish Civilization. 서지정보
- Idel, Moshe. 1988. *Kabbalah: New Perspectiv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Ilan, Tal. 1995. *Jewish Women in Greco - Roman Palestine: An Inquiry into Image and Status*. Tübingen: Mohr Siebeck. DOI
- Kahn, Susan Martha. 2000. *Reproducing Jews: A Cultural Account of Assisted Conception in Israel*.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Katz, Jacob. 1973. *Out of the Ghetto: The Social Background of Jewish Emancipation, 1770 – 187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halidi, Rashid. 1997. *Palestinian Identity: The Construction of Modern National Consciousnes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Klawans, Jonathan. 2006. *Purity, Sacrifice, and the Temple: Symbolism and Supersessionism in the Study of Ancient Juda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Langer, Ruth. 1998. *To Worship God Properly: Tensions between Liturgical Custom and Halakhah in Judaism*. Cincinnati: Hebrew Union College Press.
- Langer, Ruth. 2021. “Jewish Liturgical Responses to the Roman Destruction of the Temple.” *Yale ISM Review* 6 (1), article 3. 연구자 출판목록
- Lapin, Hayim. 2012. *Rabbis as Romans: The Rabbinic Movement in Palestine, 100 – 400 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OI
- Levenson, Jon D. 2006. *Resurrection and the Restoration of Israel: The Ultimate Victory of the God of Lif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evine, Lee I. 2005. *The Ancient Synagogue: The First Thousand Years*. 2nd 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Lipschits, Oded. 2005. *The Fall and Rise of Jerusalem: Judah under Babylonian Rule*. Winona Lake, IN: Eisenbrauns. 서지정보
- Magness, Jodi. 2011. *Stone and Dung, Oil and Spit: Jewish Daily Life in the Time of Jesus*. Grand Rapids: Eerdmans.
- Menache, Sophia, ed. 1996. *Communication in the Jewish Diaspora: The Pre - Modern World*. Leiden: Brill. 서지정보

- Meshel, Zeev, Liora Freud, Judith Sandhaus, Shmuel A ituv, and Esther Eshel. 2012. *h Kuntillet ‘ Ajrud (orvat Teman): An Iron Age II Religious Site on the Judah – Sinai Border* H .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 Meyer, Michael A. 1988. *Response to Modernity: A History of the Reform Movement in Juda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Nickelsburg, George W. E. 2006. *Resurrection, Immortality, and Eternal Life in Intertestamental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Expanded 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Penslar, Derek J. 2023. *Zionism: An Emotional State*.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Porten, Bezalel. 1968. *Archives from Elephantine: The Life of an Ancient Jewish Military Colon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ajak, Tessa. 2009. *Translation and Survival: The Greek Bible of the Ancient Jewish Diaspor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Reif, Stefan C. 1993. *Judaism and Hebrew Prayer: New Perspectives on Jewish Liturgical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benstein, Jeffrey L. 2003. *The Culture of the Babylonian Talmu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Rubenstein, Richard L. 1992. *After Auschwitz: History, Theology, and Contemporary Judaism*. 2nd e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Rustow, Marina. 2008. *Heresy and the Politics of Community: The Jews of the Fatimid Caliphat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Rustow, Marina. 2020. *The Lost Archive: Traces of a Caliphate in a Cairo Synagogu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출판사 연구 소개
- Sanders, E. P. 1992. *Judaism: Practice and Belief, 63 BCE – 66 CE*. London: SCM Press. 서지정보
- Schmiedewind, William M. 2004. *How the Bible Became a Book: The Textualization of Ancient Isra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olem, Gershom. 1941. *Major Trends in Jewish Mysticism*. New York: Schocken. 서지정보
- Schwartz, Seth. 2001. *Imperialism and Jewish Society, 200 B.C.E. to 640 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Shapira, Anita. 2012. *Israel: A History*. Waltham, MA: Brandeis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Simkovich, Malka Z. 2024. “Origin Stories.” *Jewish Review of Books*, Winter. 원문
- Smith, Mark S. 2001. *The Origins of Biblical Monotheism: Israel ’ s Polytheistic Background and the Ugaritic Tex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Soloveitchik, Haym. 1994. “Rupture and Reconstruction: The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Orthodoxy.” *Tradition* 28 (4): 64 – 130. 원문 안내
- Spigel, Chad. 2023. Review of *The Origins of Judaism*, by Yonatan Adler. *Jewish Book Council*, February 27. 리뷰
- Stern, Karen B. 2018. *Writing on the Wall: Graffiti and the Forgotten Jews of Antiqu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ern, Sacha. 2001. *Calendar and Community: A History of the Jewish Calendar, Second Century BCE – Tenth Century 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Stern, Sacha. 2019. *The Jewish Calendar Controversy of 921/2 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ck, Brian. 1983. *The Implications of Literacy: Written Language and Models of Interpretation in the Eleventh and Twelfth Centu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Toch, Michael. 2012. *The Economic History of European Jews: Late Antiquity and Early Middle Ages*. Leiden: Brill. 서지정보
- Twersky, Isadore. 1980. *Introduction to the Code of Maimonid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Vidas, Moulie. 2014. *Tradi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Talmu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lton, John H. 2009. *The Lost World of Genesis One: Ancient Cosmology and the Origins Debate*.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 Wertheimer, Jack, ed. 2007. *Family Matters: Jewish Education in an Age of Choice*. Waltham, MA: Brandeis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Young, Ian. 2023. Review of *The Origins of Judaism*, by Yonatan Adler. *Australian Journal of Jewish Studies* 36: 140 – 143.
- Young, James E. 1993. *The Texture of Memory: Holocaust Memorials and Meani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서지정보
- Yerushalmi, Yosef Hayim. 1982. *Zakhor: Jewish History and Jewish Memor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서지정보